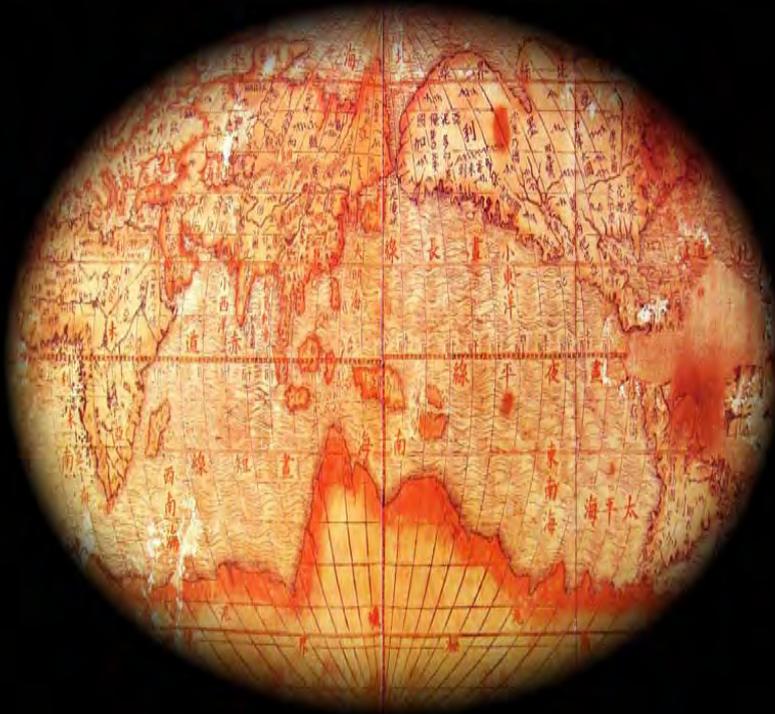


동아시아질서의 역사적 변환



천하에서 북합까지



목 차

I. 천하질서

가. 천하도의 비밀

나. 청대(清代) 천하질서의 세 얼굴: 준가르 · 티베트 · 조선

II. 국제질서

가. 금수(禽獸) 문명과의 만남

나. 일본 대아시아주의의 신화

III. 냉전질서

가. 한국전쟁의 비극

나. 미중 데탕트와 남북7.4공동성명의 명암

IV. 복합질서

가. 미중 시대의 미래

나. 21세기 동아시아 신질서 건축의 미학



제 1 회

천하도의 비밀





들어가는 말

1. 세계 10대 경제국가의 역사적 추세 1990-2015

세계 10대 경제국가의 변화추세 1990-2015

nominal GDP in IMF, World Bank, and United Nations lists (in USD billions)

Year	1st	2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10th
2015 (IMF Forecast)	 U. S. 17,783.568	 China 10,581.052	 Japan 6,372.229	 Germany 3,741.142	 France 2,984.399	 Brazil 2,871.852	 U. K. 2,850.733	 Russia 2,658.919	 India 2,384.470	 Italy 2,157.870
2010	 U. S. 14,526.550	 China 5,930.393	 Japan 5,488.424	 Germany 3,286.451	 France 2,562.759	 U. K. 2,263.099	 Brazil 2,142.926	 Italy 2,060.887	 India 1,597.945	 Canada 1,577.040
2005	 U. S. 12,599.260	 Japan 4,552.194	 Germany 2,790.003	 U. K. 2,281.039	 China 2,272.181	 France 2,146.943	 Italy 1,778.723	 Canada 1,133.759	 Spain 1,130.823	 Brazil 884.760
2000	 U. S. 9,916.360	 Japan 4,667.449	 Germany 1,902.080	 U. K. 1,478.541	 France 1,329.736	 China 1,196.599	 Italy 1,098.416	 Canada 724.916	 Brazil 643.950	 Mexico 630.028
1995	 U. S. 7,377.743	 Japan 5,264.380	 Germany 2,523.455	 France 1,570.750	 U. K. 1,157.245	 Italy 1,126.249	 Brazil 769.214	 China 737.638	 Spain 596.928	 Canada 590.506
1990	 U. S. 5,770.043	 Japan 3,048.709	 Germany 1,658.649	 France 1,245.813	 Italy 1,134.137	 U. K. 1,014.328	 Soviet Union 777.171	 Canada 582.731	 Spain 520.872	 Brazil 457.291

2. 신형대국관계

Remarks at the U.S. Institute of Peace China Conference; Secretary of State Hillary Rodham Clinton; U.S. Institute of Peace; Washington, DC(2012-0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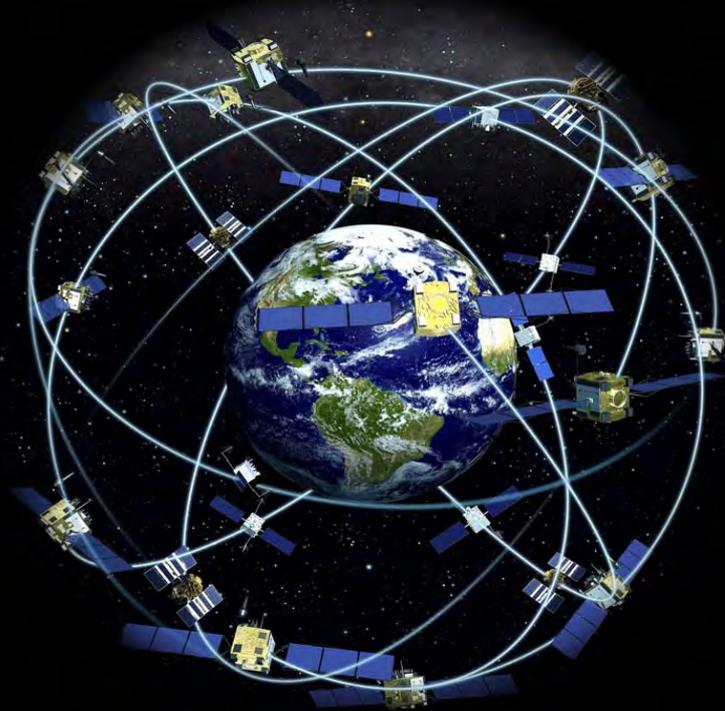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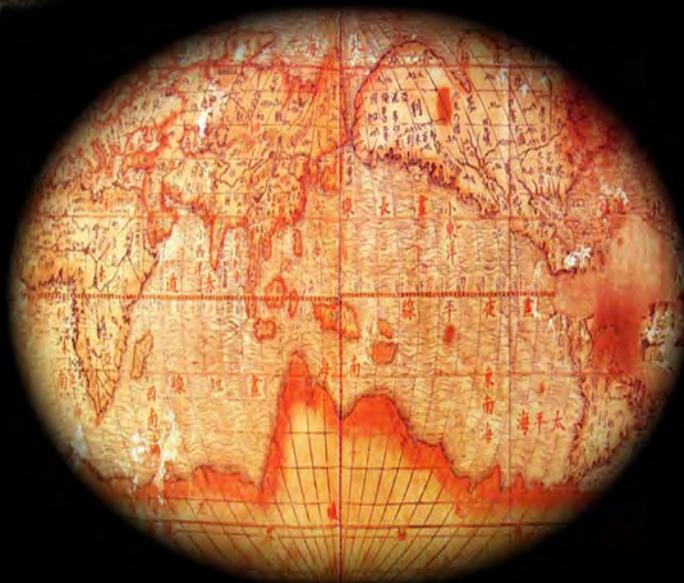
We are now trying to find an answer, a new answer to the ancient question of what happens when an established power and a rising power meet. We need a new answer. We don't have a choice. Interdependence means that one of us cannot succeed unless the other does as well. We need to write a future that looks entirely different from the past. This is, by definition, incredibly difficult. But we have done difficult things before.

胡锦涛出席第四轮中美战略与经济对话开幕式并致辞 (2012-05-04)

胡锦涛强调，中美分别是当今世界最大的发展中国家和最大的发达国家，中美关系持续健康稳定向前发展，不仅能给两国人民带来实实在在的利益，而且将为促进世界和平、稳定、繁荣作出宝贵贡献。无论国际风云如何变幻，无论中美两国国内情况如何发展，双方都应该坚定推进合作伙伴关系建设，努力发展让两国人民放心、让各国人民安心的新型大国关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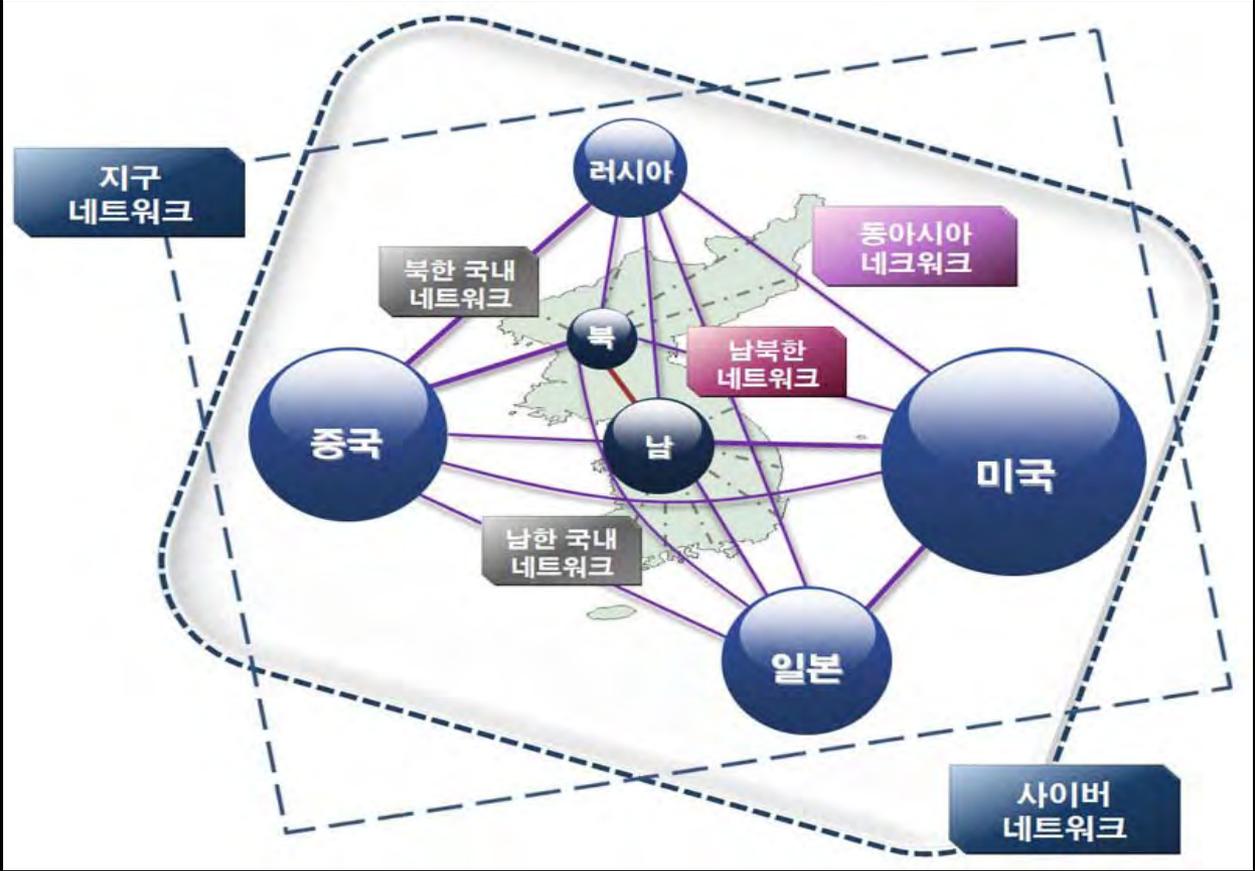
3. 동아시아신질서 건축사

복합도 → 국제도 → 천하도



3. 동아시아신질서 건축사

복합도





천하도의 비밀

1. 천하도



원형 천하도
(17세기-19세기)

내대륙/내해/외대륙/외해

화이도 : 중국+주변국

산해경 : 오장산경(五臟山經)/해외경(海外經)/해내경(海內經)/대황경(大荒經)

중국원류설/조선기원설/
서양세계지도의 영향

현실과 꿈의 복합도

2.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1402)



3. 곤여만국전도(1602)





선진(先秦)천하질서의 형성

1. 하은주단대공정(夏殷周斷代工程)

➤ 사마천 <사기> 연표 : 서주공화 원년(기원전 841)이전 연대불확실

➤ <하상주단대공정 1996-2000년 계단 성과보고>

하상주연표

- 하 : 기원전2070-기원전1600
- 상 전기 : 기원전1600-기원전1300
- 상 후기 : 기원전1300-기원전 1046
- 서주 : 기원전1046-기원전771

2. 서주(西周)의 천명



▶ 대우정 명문



◀西周大孟鼎銘文(前1003)

隹(同唯,发语词)九月,王才(通在)宗周,令(通命,册命之命)孟。王若曰:“孟,不(通丕pī,训为大)显(训为明)玟王受天有(通佑,保佑)大令(命),在(载,过去)玟王嗣玟乍邦,【外门内辟】(通辟,除去)毕(通厥,代词,指代殷商)匿(通慝,训为恶),匍有四方

3. 춘추 화이사상의 등장

가. 춘추5패



나. 춘추사료

- 춘추좌씨전, 춘추공양전, 춘추곡양전
- 제후(諸侯)와 융적만이(戎狄蠻夷)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록하고 문화적 차이를 의식하고 도덕적으로 저열한 존재로 평가

4. 전국시대 천하관념의 형성

가. 전국 7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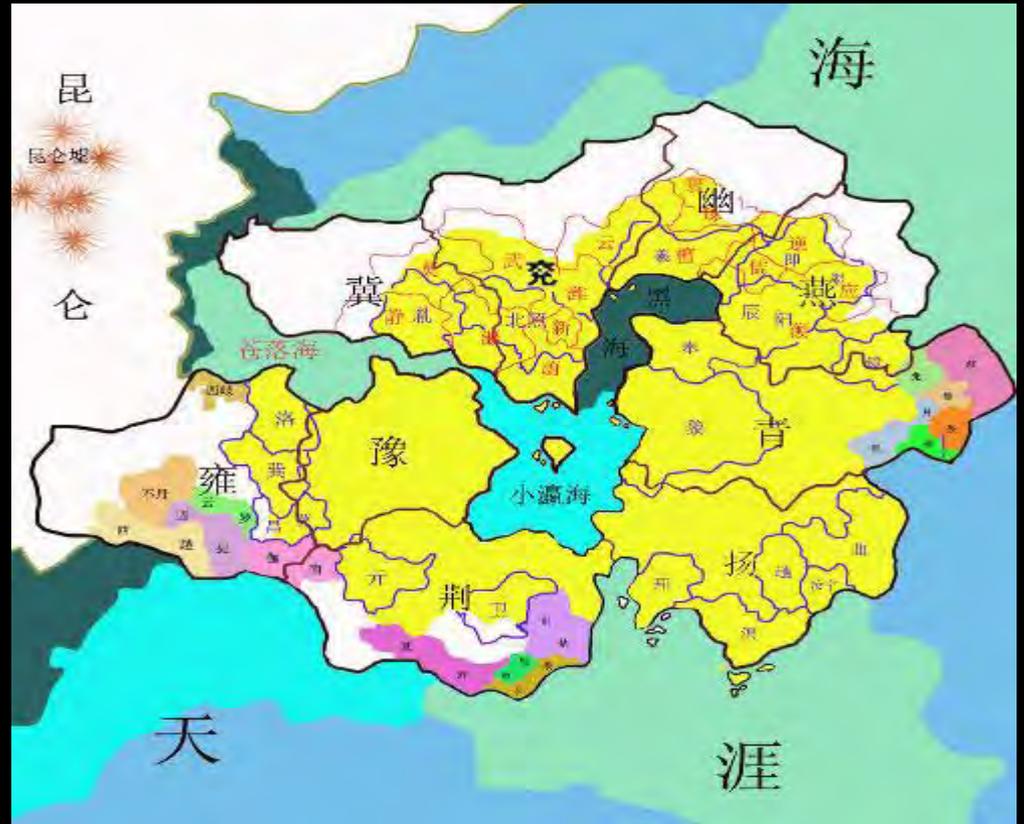


나. 유가의 왕도/묵자 한비자의 패도

4. 전국시대 천하관념의 형성

다. 구주(九州)천하

『예기(禮記)』 왕제편과, 『여씨 춘추』 심분람 신세편은 사해(四海)로 둘러싸인 사방3천리의 천하를 9주(州)로 나누고 9주의 중심에 있는 사방 천리의 영역을 천자가 지배하는 기내(畿內)로 구획하고 나머지 8주를 방백을 뒀서 통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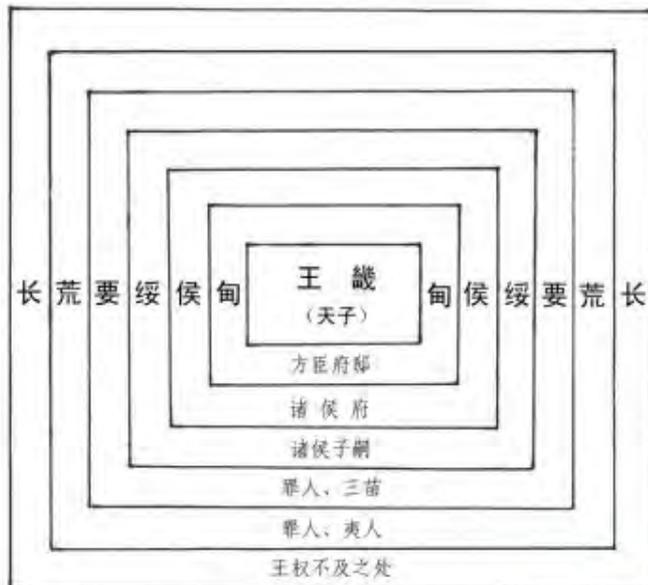


▶ 우공구주도(禹貢九州圖)

4. 전국시대 천하관념의 형성

라. 오복(五服)천하

『금문상서』 우공편은 앞에 나온 9주설과 함께 천자의 왕성부터 5백리 간격으로 전복(甸服), 후복(侯服), 수복(綏服) 또는 빈복(賓服), 요복(要服), 황복(荒服)의 5복을 설정하고 있다. 전국시기 저작인 『국어』는 5복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선왕의 제도는 왕의 직할지를 전복으로 부르고 그 밖은 제후국인 후복, 제후국의 밖은 빈복, 그 밖은 만이가 사는 요복, 융복이 사는 곳은 황복이라고 했습니다. 전복은 천자의 제(祭)에, 후복은 천자의 사(祀)에, 빈복은 천자의 향(享)에, 제수품을 담당했으며, 요복은 천자에게 매년 공물을 바치고, 황복은 군위를 계승할 때 와서 천자를 조현(朝覲)해야 합니다.”



图一 尧五服图 **你好临汾**
ChinaLinFen

▲ 오복도(五服圖)

5. 천하질서와 한국

	주인공	무대	연기	제도
전통	천하국가	예(禮)	사대자소 (事大字小)	책봉조공
근대	국민국가	부국강병	자강균세 (自強均勢)	상주외교관 조약체계
복합	그물망국가	통치/부강 환경문화/지식	경쟁공생 (競爭共生)	복합그물망외교

가. 단원적 천하

나. 사대의 예

“예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아끼는 것을 말하는데 사대는 그 때의 명을 함께 하는데 있고, 자소는 작은 나라가 없는 것을 구제하는 데 있다(禮也者 小事大 大字小之謂 事大在共其時命 字小在恤其所無)” (『春秋左傳』 昭公 三十年)

“대국이면서 소국을 섬긴 자는 천을 기쁘게 한 자이고 소국으로서 대국을 섬긴 자는 천을 두려워한 자다. 천을 기쁘게 하는 자는 천하를 지키고 천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국을 지킨다.(以大事小者 樂天者也 以小事大者 畏天者也 樂天者保天者 畏天者保其國)” (『孟子』 梁惠王 章句 下)

다. 책봉조공의 제도화

라. 천하질서권의 역사

마. 천하질서의 현대적 이해

제 2 회

청대(清代) 천하질서의 세 얼굴: 준가르 · 티베트 · 조선





들어가는 말

1. 동아시아신질서건축의 진짜 얼굴

국제·아시아 "中, 日 제치고 美와 新질서 재건축... 한국, '딱지'라도 사놔야"

이하원 기자

입력 : 2012.09.24 03:02 | 수정 : 2012.09.24 0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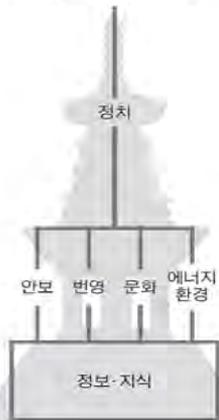
한 달 넘은 中·日 충돌, 동북아 격랑 속으로... 한국의 길을 말하다
[1] 하영선 동아시아 연구원(EAI) 이사장

[中·日 충돌, '동아시아 新질서' 측면서 봐야]
中, 동북아 상황을 中·日 아닌 中·美간 게임으로 생각
美와 점면충돌 직전까지 다오워다오 사태 키울 것
美·中간 초보적이지만 게임의 원칙 만들어지는 중

[한국,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전략 필요]
中과 甲乙이라는 게임 대신 丙이라는 제3의 길 가야
21세기에는 경제력·군사력만으론 대응하기 역부족
정보·지식이 바탕된 '다보탑식 복합 국력' 필요



하영선 이사장이 말하는 21세기에 필요한 '다보탑식 복합 국력'



한·일·중·미 비교
GDP와 성장률은 2011년 기준.



※ 한·일·중 인구는 세계 인구(약 70억4100만명)의 약 21.7%, 한·일·중 GDP는 세계 GDP(69조6596억달러)의 20.5%

자료: IMF, 각국 정부

뉴스 > 최신기사 > 문화

정년퇴임 하영선 서울대 교수가 말하는 '급변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전략'

기사입력 2012-09-03 03:00:00 기사수정 2012-09-03 10:30:49

"대통령 독도방문 당연... 中 의식한 日 과잉반응"

"한일 과거사 문제는 양국 정상의 임기 내에 조속히 해결하기 어렵다. 양국이 장기적으로 향후 30년의 '손익계산서'를 짜야 한다."

국제정치학계에 '복합(複合)' '용미(用美)' '공진(共進)' 등 다양한 화두를 던져온 하영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65·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가 최근 정년퇴임했다. 이에 맞춰 그가 편저자로 나선 '복합세계정치론(한울)'과 '제1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논문집(전 3권·한울)이 잇따라 출간됐다. 하 교수는 20일부터 두 달간 연세대에서 '동아시아 질서의 역사적 변환과 한반도'를 주제로 8회에 걸쳐 특별강좌를 연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부정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을지로4가 동아시아연구원에서 그를 만나 급변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질서에서 한국이 택해야 할 전략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경색된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나.

"독도 이슈는 한일 양국에서 국내정치화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이상 한국 대통령은 당연히 독도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너무 이슈화했다. 가뜰스나 중국의 부상으로 초조해진 일본이 과잉반응을 보인 것이다. 최근 일본이 한국에는 고자세, 중국에는 저자세로 나오는데 이는 일본의 전형적인 19세기 제국주의식 태도다.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는 현실적 힘을 가진 자에겐 저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하영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장기적으로 30년 단위의 밑그림을 그릴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양국 신세대들의 긴밀한 교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 동아시아 신질서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 중국 모두와 동맹을 강화하는 연미연중(聯美聯中)을 제안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2. David Hockney: A Bigger Picture

"Nov 7th, Nov 26th 2010 Woldgate Wood 11:30am and 9:30am"



3. 중국의 '청사편수공정'과 구미의 신청사(New Qing History)연구





칭제국과 준가르

1. 열하만수원사연도(1755)



- ✓ 1754년 아무르사나(Amursana)를 비롯한 서몽고족 수령들의 귀환
- ✓ 1755년 쥬세페 카스틸리오네 (Giuseppe Castiglione, 郎世寧)

2. 청제국과 준가르 전투



2. 청제국과 준가르 전투

➤ English: The Battle of Oroi-Jalatu, 1756. Chinese general Zhao Hui attacked the Zunghars at night in present Wusu, Xinjing.

➤ 中文：清乾隆《平定準部回部得勝圖》（平定西域戰圖）之三《鄂壘扎拉圖之戰》。描繪乾隆二十一年（1756年），定邊右副將軍兆惠西征阿睦爾撒納，自伊犁回師時，在庫爾喀喇烏蘇附近之鄂壘扎拉圖（今新疆烏蘇市南），戰勝準噶爾宰桑達什策凌之情形。上有乾隆皇帝御題詩曰：以誠馭詐致相輕，哈薩纔迴譎變生。戊己駐營攜少卒，螳螂怒臂阻前程。直何畏曲中宵出，一可當千眾賊驚。竟得全師逢接騎，整軍復入大功成。

- Date 1765-1769
- Source <http://www.battle-of-qurman.com.cn/e/hist.htm>
- Author: A collaboration between Chinese and European painters. The Jesuit missionaries involved in producing the drawings in China were Giuseppe Castiglione, Jean-Denis Attiret, Ignace Sichelbart and Jean Damascene. The engravings were executed in Paris under the direction of Charles-Nicolas Cochin of the Académie Royal at the Court of Louis XVI and the individual engravers include Le Bas, Aliamet, Prevot, Saint-Aubin, Masquelier, Choffard, and Launay.



청제국과 티베트

1. 티베트 5세 달라이 라마와 청제국 순치제



✓ 1652 티베트 5세 달라이 라마 청 순치제가 베이징에서 '최원'(檀越=供施) 관계를 맺음

2. 제6세 판첸라마와 건륭제



✓ 1780 제6세 판첸라마 건륭제의 열하 7순잔치 참석

- James A. Millward, et.al., *New Qing Imperial History: The making of Inner Asian empire at qing Chengde* (London: Routledge, 2004) ch.16 The Third Panchen Lama's visit to Chengde.

3. 건륭제



✓ 건륭제 : 칸/법륜왕/황제



청제국과 조선

1. 연암과 열하일기



연암의 삶

- ✓ 우울한 가슴앓이(1737-1767)
- ✓ 백담파 모임(1768-1785)
- ✓ 뒤늦은 벼슬살이(1786-1805)

2. 제6세 판체라마와 조선연행사의 만남



✓ 열하일기 : ‘막북행정록’
而其實地據險要。扼蒙古之咽喉。
爲塞北奧區。名雖避暑。而實天子
身自防胡

✓ 열하일기 : ‘황교문답’

余至熱河。有以默審天下之勢者五。皇帝年年駐蹕熱河。熱河乃長城外荒僻之地也。天子何苦而居此塞裔荒僻之地乎。名爲避暑。而其實天子身自備邊。然則蒙古之強可知也。皇帝迎西番僧王爲師。建黃金殿以居其王。天子何苦而爲此非常僭侈之禮乎。名爲待師。而其實囚之金殿之中。以祈一日之無事。然則西番之尤強於蒙古。可知也。此二者

2. 제6세 판체라마와 조선연행사의 만남

✓ 열하일기: '찰십륜포'

使臣方以次還出。軍機目烏林哺止使臣。盖使其爲禮。而使臣未曉也。因逡巡卻步。退坐黑緞繡網。次蒙古王下。坐時微俯躬舉袂仍坐。軍機色皇遽。而使臣業已坐。則亦無如之何。若不見也。

✓ 열하일기: '피서록'

今日班禪所贈佛軀幾一尺。似是刻木鍍金耳。安知無妖怪憑附耶。倉卒受此。一行上下。如沈手蜜瓮。罔知攸措。余夜問區處善策於正使。則曰已令首驛。造小櫃子。余對曰。善矣。正使問所善何意。曰。此欲浮之江耳。正使笑。余亦笑。蓋棄置沿道寺刹。則恐爲中國所怒。以此入國。當駭物情。彼此交界。順流而放海。莫如鴨綠江

3. 조선의 대청 복합그물망 외교론

✓ 열하일기 ‘오갑야화’의 허생전

- 와룡선생 같은 지략가의 삼고초려
- 명나라 장졸들에게 혼인, 재산분배
- 변발호복의 중국유학과 무역 네트워크



제 3 회

“금수(禽獸)” 문명과의 만남





들어가는 말

1. 탈냉전과 복합세계정치론의 탄생

2. 문명표준의 등장 : 21세기와 19세기

3. 전통과 근대의 이분법 극복

위정척사론/동도서기론/문명개화론의 3분법

⇒ 위정척사론/해방론/원용부회론/양절체제론/자강군세론/국권회복론의 6분법

4. 앎에서 삶으로

제1차 아편전쟁/제2차 아편전쟁/임오군란/청일전쟁/러일전쟁



**제1차아편전쟁(1839-1842)과
魏源의 海國圖志**

1. 아편전쟁



◀ 제1차 아편전쟁

- 청국 영국동인도회사와 광둥무역 : 차와 아편
- 청조 “엄금파(嚴禁派)” 와 “이금파(弛禁派)”
- 1839.03. 흠차대신 林則徐 1839년 3월 광둥성 부임 6월 아편 2만상자 몰수 소각
- 1839.10. 영국 원정군 파견 결정
- 1840.06. 영국 원정군 도착
- 1840.10. 흠차대신 林則徐 파면당함.
- 1842.08.29. 청국과 영국 南京조약 체결

2. 해국도지



- ✓ 린쩌쉬(林則徐)는 Murray <Cyclopedia of Geography>를 번역해서 『사주지』(四洲志, 1841)완성
- ✓ 웨이 위안 『사주지』(9만자)외에 국내외 자료를 종합해서 1 『해국도지』 50권(57만자)(1843)을 출판, 60권(1847)으로 늘리고 쉬지위(徐繼畬 1795-1873) 『영환지략(瀛環志略)』(1848)등의 도움을 받아 최종적으로 100권(88만자)(1852)을 완성
- ✓ 오랑캐로 오랑캐를 공격하고 오랑캐로 오랑캐를 친화적으로 대하고 오랑캐의 장기를 배워서 오랑캐를 제압하기 위한 것(爲以夷攻夷而作 爲以夷款夷而作 爲師夷長技以制夷而作)

2. 해국도지

✓ 해방론의 핵심 「의수(議守)」, 「의전(議戰)」, 「의관(議款)」.

의수는 외양이나 바다보다 내수를 지켜서 오랑캐를 막는 방법과 객병(客兵)을 토착병으로 수사(水師)를 수용(水勇)으로 대체하는 법, 의전은 오랑캐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오랑캐의 적으로 오랑캐를 공격하는 법과 전함, 화기, 양병·연병법 같은 오랑캐의 장기를 배워 오랑캐를 제압하는 법, 의관은 각국에 호시(互市)를 허용하고 아편에 높은 세를 적용한 무역을 하는 친화적 수단으로 오랑캐를 대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해국도지』의 해방론은 19세기 중반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해방론의 전형적 표준이 됐다.



**제2차 아편전쟁(1856-1860)과
윌리엄 마틴의 만국공법**

1. 제2차 아편전쟁



▲ 1857 영불연합군의 광저우 점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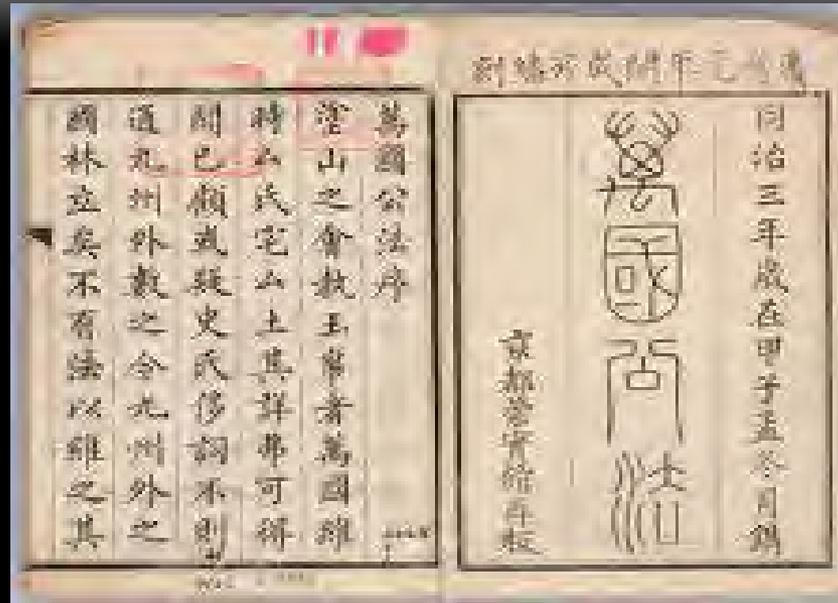


베이징 원명원 ▶

1. 제2차 아편전쟁

- 1854.04 영국, 프랑스, 미국 공사 광저우에서 난징조약의 개정을 요구
- 1856.10 Arrow호 사건
- 1857.12 영불연합군 광저우 점령
- 1858. 다구포대, 텐진 점령
- 1858.06 텐진조약 : 외교사절의 베이징 상주/개방확대/아편무역 합법화/
기독교 공인/배상금 지불
- 1839.06 전투재개
- 1860.06-10 영불연합군 베이징 점령/함풍제 열화로 피난/공친왕과
베이징 조약 체결

2. 만국공법(1864)



◀ 만국공법

✓ 제 2차 아편전쟁은 중국의 전통적인 천하질서에 변화를 가져와 더 이상 서양 세력들을 일방적으로 오랑캐로 취급하고 무시할 수 없었다. 구미 국가들의 외교관들을 베이징에 상주시키고 이들과 대응하기 위해서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을 신설했다. 전통적으로 조공관계를 다뤘던 예부(禮部)와 함께 이중외교의 틀을 만든 것이다.

2. 만국공법(1864)

✓ 마틴(W.A.P. Martin)의 주도하에 1864년 번역된 『만국공법(萬國公法)』 간행을 요청하는 공친왕의 상주문(『同治朝籌弁夷務始末』 券 27)

“은밀하게 조사해 보니, 외국인은 모두 중국어 학습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활한 자는 중국의 서적을 읽어 보고 자료를 모아, 사건이 일어나 협의하게 돼도 중국의 전제(典制)와 율례(律例)를 원용(원문에는 援據)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외국의 사례를 빌려서 그들을 논파하려고 각오하고 있으나, 아무리 보아도 외국 조례(條例)가 모두 서양문자로 적혀 있어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동문관(총리아문 부속 통역양성학교)의 학생들이 서양문자에 숙달되려면 아직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서양 나라들이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자리에서 은밀히 형세를 살펴 만국율례(萬國律例)라는 책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서적을 입수해서 번역하고 싶었으나 어쩌면 그들이 밀약하고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침 미국공사 벌링엄(A. Berlingame)이 와서 각국가들이 장차 대청율례(大清律例)를 외국어로 번역할 것이라고 말하고 또 외국에는 통행하는 율례가 있는데 최근 선교사 마틴이 한문으로 번역했으니 보여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해 9월 벌링엄은 마틴을 대동하고 나타나 『만국율례』 네 권을 내 놓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이 책은 모든 조약체결국들이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참고하여 원용(원문에는 援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 만국공법(1864)

『만국공법』이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원용론과 부회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구미제국들의 무리한 요구를 전통적 천하질서의 논리로서 거부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사고와 행동의 규범논리를 원용하여 상대방을 물리치려는 노력을 했다. 다음으로는 만국공법의 기본원리가 단순히 서양의 전통에서 창출된 것이 아니라 중국 고대 춘추전국시대의 국가들 사이에 존재했던 행동의 규범원칙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는 부회론을 주장했다. 원용부회론은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만국공법을 원용부회의 시각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했다. 1979년 7월 이홍장(李鴻章)이 한국의 영부사(領府事) 이유원(李裕元)에게 “독으로 독을 공격하고 적으로 적을 제압하는 계책(以毒攻毒以敵制敵之策)”을 써서 서양의 여러나라와도 차례로 조약을 맺어서 일본을 견제하라는 편지에 대해서 이유원은 “서양 공법에는 이미 이유없이 남의 나라를 빼앗거나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러시아와 같은 강국도 귀국에서 군대를 철수했으니 혹시 우리나라가 죄없이 남의 침략을 당하는 경우에도 여러 나라에서 공동으로 규탄하여 나서게 되겠습니까. 한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터어키를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준 것으로 보아서는 공법이 믿을만 한데 멸망한 유구국을 일으켜 세우는데는 공법이 그 무슨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까. 또한 일본 사람들이 횡포하고 교활하여 여러 나라들을 우습게 보면서 방자하게 제멋대로 행동해도 공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라고 답하고 있다.



임오군란과 유길준의 서유견문



▲ 1882년 별기군



◀ 대원군



원세개 ▶



▲ 1883 견미사절단

1. 임오군란

- 1882.7.19. 선혜청 도봉소 사건 : 옛 훈련도감 무위영 군병들에게 13개월 밀린 군료지급 과정에서 불만 폭발
- 1882.7.23. 민겸호, 대원군 방문 / 일본공사관 습격
- 1882.7.24. 민겸호의 집을 점령
- 1882.7.25. 민겸호, 김보현 살해 / 명성황후 장호원의 총주목사 민응식의 집으로 피신 / 대원군 입궐
- 1882.8.10. 청군 3,000명 진주. 마건총/오장경
- 1882.8.12. 일군 도착
- 1882.8.25. 청국 대원군을 텐진으로 납치
- 1882.8.29. 조일간에 제물포조약

2. 유길준의 〈서유견문〉

“조공받는 국가가 그런 즉 여러 국가에게 같은 예도를 행하고 조공받치는 나라에게는 독존의 모습을 마음대로 하니 조공하는 국가 체제가 조공받는 나라와 여러 다른 국가들에게 앞뒤로 나뉘지고 조공받는 국가 체제도 조공받치는 국가와 여러 다른 국가들에게 역시 앞뒤로 나뉘진다. 조공 받는 국가와 조공받치는 국가를 하나로 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형세의 강약을 고려하지 않고 권리의 유무만 따지기 때문이다. 강국의 망령된 존중에 대해서는 공법의 비난이 있고 약한 국가의 수모에 대해서는 공법의 보호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가 아닌 치우친 막힘은 공법이 행해지지 않아서 약자가 스스로 보호하는 길이니 강자가 자행하는 교만한 습관을 조성하는 데는 공법의 한 조목도 세우지 않았다.” (受貢國이 然則 諸國을 向하여 同等의 禮度를 행하고 贈貢國을 對하여 獨尊한 體貌를 擅하리니 此난 贈貢國의 體制가 受貢國及 諸他國을 向하여 前後의 兩截이 오 受貢國의 體제도 贈貢國及 諸他國을 對하여 亦前後의 兩截이라 受貢國及 贈貢國의 兩截體制를 一視함은 何故오 形勢의 強弱은 不顧하고 權利의 有無를 只管하나니 強國의 妄尊은 公法의 譏刺가 自在하고 弱國의 受侮난 公法의 保護가 是存한지라 然한 故로 如是不一한 偏滯口 公法의 不行으로 弱者의 自保하난 道니 强者의 恣行하난 驕習을 助成하기 爲하야난 公法의 一條도 不設함이라.)

※ 속국자주/속국종속/조공돌립/자주독립



**청일전쟁과 량치차오의
『음빙실문집(飲冰室文集)』 (1903)**

1. 청일전쟁(1894.7.25-1895.4)

제국적 민족주의

구미제국들의 불간섭
3국 간섭

청일전쟁

✓ 일본의 공격적 외교정책

1890. 山県有朋의 主權線/利益線

1894.6 일본군 8천명 인천도착

1894.7.23. 경북궁점령

✓ 청국의 소극적 대응

帝党和 后党

1894.6.1. 조선의 청군요청

1894.6. 청군 3,500명

✓ 조선

1894.06.11. 동학농민운동 종료

1894.07.25. 풍도해전

1894.09.15. 평양전투

1894.11.21. 여순 함락

1895.02.21. 웨이하이 요새 함락

1895.04.17.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 청일전쟁의 일본육군

2. 량치차오의 『음빙실문집(飲冰室文集)』 (1903)



◀ 량치차오의 음빙실

✓ 今吾朝受命而夕飲冰，我其內熱與 吾未至乎事之情，而既有陰陽之患矣；事若不成，必有人道之患者 (莊子·人間世)

✓ 1896년의 글에서 중국최초로 文明개념을 도입한 후 1899년부터 1905년까지 「清議報」, 「新民叢報」에 단속적으로 연재했던 「自由書」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自由書」의 1절 “文野三界之別”에서 세계의 인류가 야만, 반개, 문명의 3단계로 나누어져 순서를 밝아 밝아 상승하는 것이 세계 인민 공인의 진화의 공리라고 밝히고 있다. 3개월 후 「民國十大元氣論(一名 文明之精神)」에서 일본 문명론의 도움을 받은 梁啓超의 중국 문명론은 1900년대 초 단행본, 신문, 잡지등을 통해 조선의 개신 유학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중에도 「清國戊戌 政變記」, 「越南亡國史」, 「伊太利建國三傑傳」, 「中國魂」, 「飲冰室自由書」, 「十五小豪傑」 등은 우리말로 번역되어 널리 알려졌다. 문명화를 위해서는 「形質의 文明」대신에 「精神의 文明」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청일전쟁의 결과로 한반도에서 청의 종주권이 실질적으로 소멸하게 됨에 따라, 국내의 많은 전통 유학지식인들이 양무론을 넘어서서 변법론의 불가피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청조 말 대표적 개혁 지식인인 량치차오(梁啓超)의 국난극복론인 『음빙실문집(飲冰室文集)』(1903)을 통해서 사회진화론에 기반한 국제질서관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러일전쟁과 신채호의
“동양주의에 대한 비판”**

1. 러일전쟁

- 1895.4.23.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3국 간섭: 요동반도와 여순항의 포기 압력
- 1900. 의화단사건
- 1902. 영일동맹
- 1903. 러일 협상
- 1904.2. 일본해군이 인천과 여순 앞바다에서 러시아해군을 기습
- 1905.1. 여순항의 러시아 수비대가 항복
- 1905.3. 봉천대회전
- 1905.5. 대한해협 해전에서 일본 승리
- 1905.9. 포츠마스조약 체결



◀ 러일전쟁당시 인천항에서 바리야크호(Variak), 코레츠(Koryeth)호의 침몰

2. 신채호의 “동양주의에 대한 비판”



◀ 대한매일신보
“동양주의에 대한 비판”

噫라, 一洞이 團結하여 我家의 禍를 救할진대 此를 구함이 可하거니와, 今에 不然하여 一洞의 團結與否가 我家 興亡에 無關하거늘, 徒然히 毒敵의 後를 隨하여 此를 共議하면 어찌 奴癡가 아니리오. 此로 推하면 韓國人이 此 列國競爭時代に 國家主義를 提唱치 않고, 東洋主義를 迷夢하면 是는 今日時代의 人物로 未來 他星世界의 競爭을 憂하는 者와 無異며, 又此 悲境中에서 羈絆脫却의 道는 不思하고 東洋主義를 仗하면 是는 波蘭人이 西洋主義를 說함과 無異니라. 況 國家는 主로 東洋은 客이어늘 今日 東洋主義 提唱者를 觀하건대, 東洋이 主되고 國家가 客되어, 國의 興亡은 天外에 付하고 惟 東洋을 是保하려 하니, 嗚呼라, 何其 愚迷함이 此에 至하느뇨. 然則 韓國이 永亡하며 韓族이 永滅하여도, 但 此國土가 黃種에게만 歸하면 此를 樂觀이라 함이 可할까. 嗚呼라, 不可하니라. 或者는 又云하되, 彼 東洋主義를 唱하는 者도 眞實 東洋을 爲함이 아니라 但只 此主義를 利用하여 國家를 救코자 함이라 하나, 吾儕는 觀건대, 韓人이 東洋主義를 利用하여 國家를 求하는 者는 無하고 外人이 東洋主義를 利用하여 國魂을 篡奪하는 者 有하나니, 戒하며 慎할지어다.”

참고자료

"국난의 정치를 극복하라" 중앙일보 시평 2003/1/23

"역사의 갈림길에 서서" 중앙일보 시평 2005/1/1

"김옥균 묘 앞에서" 중앙일보 하영선 칼럼 2006/6/26

"연작처당" 중앙일보 하영선 칼럼 2006/8/31

"선거 밖의 선거" 조선일보 하영선 칼럼 2007/12/9

"120년 전 유길준의 꿈" 조선일보 하영선 칼럼 2005/5/1

"짜통세상과 맑은 인연" 조선일보 하영선칼럼 2009/12/17

"21세기 허생의 중국 문제 풀기" 조선일보 하영선 칼럼 2010/8/19

제 4 회

일본 대아시아주의의 신화





들어가는 말

1. 전통천하질서와 근대국제질서와의 만남: 5단계의 역사적 변환

2. 근대국제질서의 어려움: 민족주의/국제주의/제국주의

Nationalism is a plain highway to internationalism, and if it manifests divergence we may well suspect a perversion of its nature and its purpose. Such a perversion is Imperialism, in which nations trespassing beyond the limits of facile assimilation transform the wholesome stimulative rivalry of varied national types into the cut-throat struggle of competing empires.
(John A. Hobson, *Imperialism: A Study* (New York, James Pott & Co., 1902))

3. 동아시아질서의 어려움



1차 세계대전과 국제주의

1. 1차 세계대전



- 참전군인 7천만
- 사망 : 군인 1천만/민간인 7백만
- 부상 : 2천만

2. 이상주의 vs 현실주의의 신화

- ✓ E.H. Carr의 Twenty Years' Crisis: The Science of International Politics

3. 민족주의/국제주의/국제주의의 현실

- ✓ 베르사유체제/국제연맹/워싱턴회의(1921-22)/로카르노조약(1925)
- ✓ Alfred Zimmern/Paul S. Reinsch/Leonard Woolf

4. 일본

- ✓ “自國本位主義對國際協同主義批判” <中央公論>(1921/2)
- ✓ 吉野作造 “現代思潮の低流は國制協同主義”
- ✓ 紀平正美 “一方は事實 一方は空想”

5. 중국

✓ 리다자오(李大钊) “大亞細亞主義與新亞細亞主義” 〈國民雜誌〉(1919/2)

‘대아시아주의’가 중국병탄주의의 은어이며 대일본주의의 다른 이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남에게 병탄된 아시아의 민족은 모두 해방하고 민족자결주의를 실행해야 하며, 그런 후에 하나의 대결합을 결성하여 구미의 연합과 함께 세 세력이 정립함으로써 공동으로 세계연방을 완성하고 인류의 행복을 더욱 증진하는” 신아시아주의를 주장했다.

✓ 쑨 원(孫文) “大亞洲主義演說辭” (1924/11/28 일본고베여자고등학교강당) 〈民國日報〉(1924/12/8)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고 새로운 열강이 된 이후 일본은 아시아 약소민족들의 희망이 되었다. (중략) 현재의 세계적 정세는 동양과 서양의 대립 상황인데 서양문화의 기반은 이욕과 강권(무력)에 기반하는 '패도문화'인 반면 일본과 중국을 포함하는 동양문화의 기반은 도덕과 인의에 기반하는 '왕도문화'이다. (중략) 이러한 왕도문화를 발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민족들의 대연합, 즉 대아시아주의가 실현되어야 하며 현재 강권적 패도문화로부터 이탈해 나와 동양의 인의 도덕에 접근하고 있는 소련과의 연합도 모색해야 한다.

6. 한국

✓ 김양수 “세력균형주의와 국제협조주의” 〈역사속의 젊은 그들〉

✓ 여운형 “도쿄 제국호텔 기자회견 연설” (1918/11/28)

“평화란 것은 형식적 단결로는 성취하지 못한다. 이제 일본이 아무리 첩첩이구로 일중친선을 말하지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오직 정신적 단결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동양인이 이런 경우에 서로 반목하는 것이 복된 일인가? 조선 독립문제가 해결되면 중국문제도 용이하게 해결될 것이다. 일찍이 조선독립을 위하여 일청전쟁과 일로전쟁을 했다고 하는 일본이 그때의 성명을 무시하고 스스로 약속을 어겼으니, '한,화' 두 민족이 일본에 대해 원한을 품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선독립은 일본과 분리하는 듯하나 원한을 버리고 동일한 보조를 취하여 함께 나가고자 하는 것이니 진정한 합일(合一)이요, 동양 평화를 확보함이며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제일의 기초이다.”



**15년 전쟁(1931-1945)과
일본의 “대아시아” 주의**

1. 만주사변(1931-)/중일전쟁(1937)/태평양전쟁(1941)



▲ 만주사변



▲ 중일전쟁



◀ 태평양전쟁

2. 코노에 후미마로의 “동아시아신질서 건설”

- 제1차 성명(1938/1/16): 「爾後蔣介石政府を对手とせず」
- 제2차 성명(1938/11/3): 戦争目的を「国民政府抹殺」でなく「東亞新秩序建設」とし、新秩序建設に同意する限りで国民政府を承認、
- 제3차 성명(1938/12/22): 国民政府との和平の3原則 「善隣友好」 「共同防共」 「經濟提携」
- 동아협동체론: 로오야마 마사미찌(蠟山政道) 「東亞協同体の理論」 『改造』 第20 卷第11 号(1938)、 「国民協同体の形成」 『改造』 第21 卷第5 号(1939), 「世界新秩序の展望」 『改造』 第21 卷第12 号、(1939), 『東亞と世界—新秩序への論策』、(改造社,1941)
日本民族의 軍事政治經濟 主導力으로 東亞地域 運命協同체를 건설

3. 중국

“이번 대중국 작전의 목적은 중일 양국 간의 정치-경제-문화의 합작을 기초로 하여 동아시아의 신질서를 창조하는데 있다고 일본은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을 기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평등한 조건에 기초하여 일본과 합작하는 것은 중국이 본래부터 반대하지 않았지만 일본정부에 의해 제기된 정치합작은 전적으로 중국의 자유독립국가로서의 신성한 권리를 희생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국민은 끝까지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 국민정부 대변인 성명 1938/11/3)



**일본의 “동아협동체론” 과
한국의 비극**

1. “동아협동체와 조선” <삼천리> 제11권 제 1호 (1939/1/1)

김명식 “건설의식과 대륙진출”

- 신동아건설은 이론의 시기를 지나서 실현의 제1단계
- “新東亞의 聯邦問題는 人類史에 있어서 新紀元을 지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新東亞協同體의 건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新運命의 第一歩를 開拓치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 신동아건설의식: 서양의 근대국가의식, 중국 삼민주의, 서양 파시즘 적합하지 않음.
- “정치적으로 데모구라시와 경제적으로 고렉띠브와 사회적으로 휴머니즘을 集結調和하여 單一 觀念으로 조직한 理想主義”가 新東亞 건설의 완전무결한 의식.
- 新建設意識은 東方的인 동시에 西歐的이어서 世界的이 되어야 한다.
- 日支兩民族間에서 調和役의 임무
- • 협화적내선일체론

2. 김명식의 비극



- 1891.9.26. 제주도 명문가에서 출생
- 1911-1912. 경성고등보통학교입학
- 1915-1919. 일본 와세다 전문부 정치경제과
신아동맹당 가입
- 1920. 동아일보 논설반
사회혁명당 창립대회 참석
- 1922. 김윤식사회장반대를 계기로 동아일보를 퇴사하여
〈신생활〉창간
- 1923.1.15 신생활사 필화사건 2년 언도 4월 함흥형무소로
이감
늑막염과 폐결핵으로 형집행정지 후유증으로 청각
상실/신체장애
- 1928.3 병의 치료를 위해 일본 오사카로 출국
- 1936. 귀국
〈독재정치와 의회정치〉발간
- 1938. 전향
- 1940. 제주도 고향으로 낙향
- 1943.5.14. 사망

참고자료

- ✓ 김명식의 “동아협동체와 조선”
(http://db.history.go.kr/url.jsp?ID=ma_16_11_01_0060)
- ✓ 김양수 <역사속의 젊은 그들>
- ✓ 여운형 도쿄 제국호텔 기자회견 연설(wikisource)
- ✓ Sven Saaler and J. Victor Koschmann (eds.):
Pan-Asianism in Modern Japanese History
(http://japanesehistory.de/wordpress/?page_id=752)

제 5 회

III. 냉전질서

한국전쟁의 비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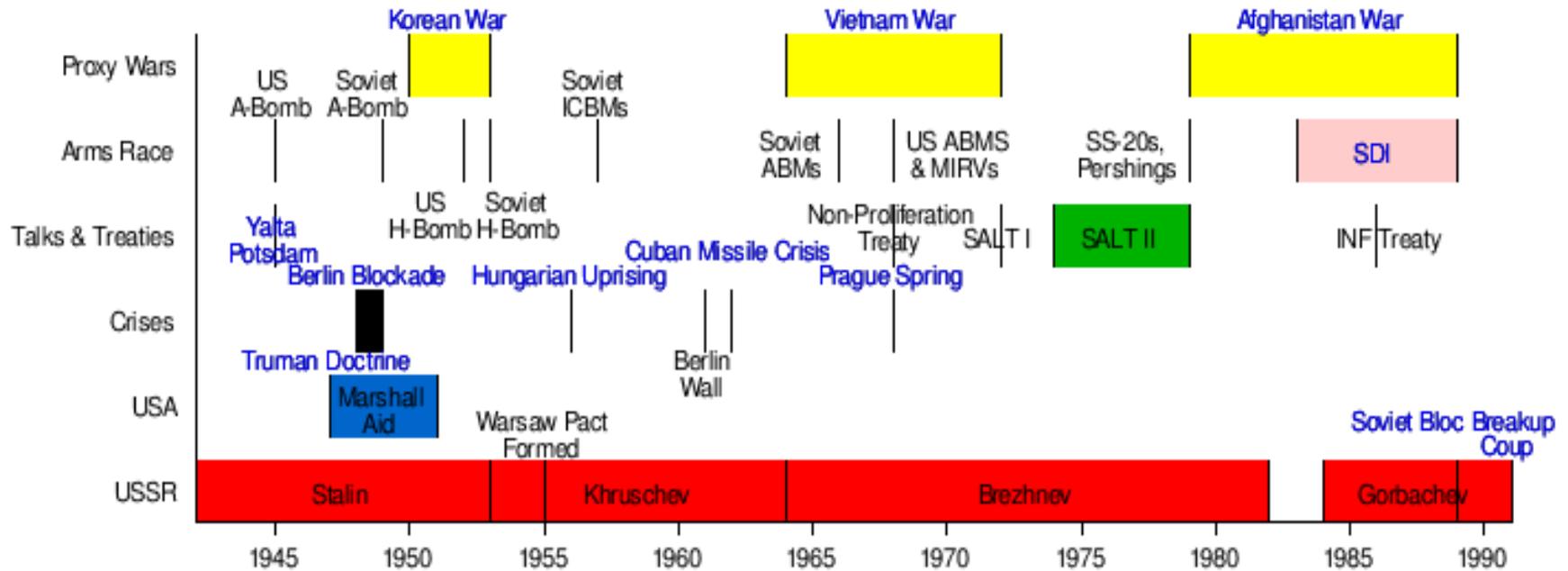


들어가는 말

1. '냉전' 개념의 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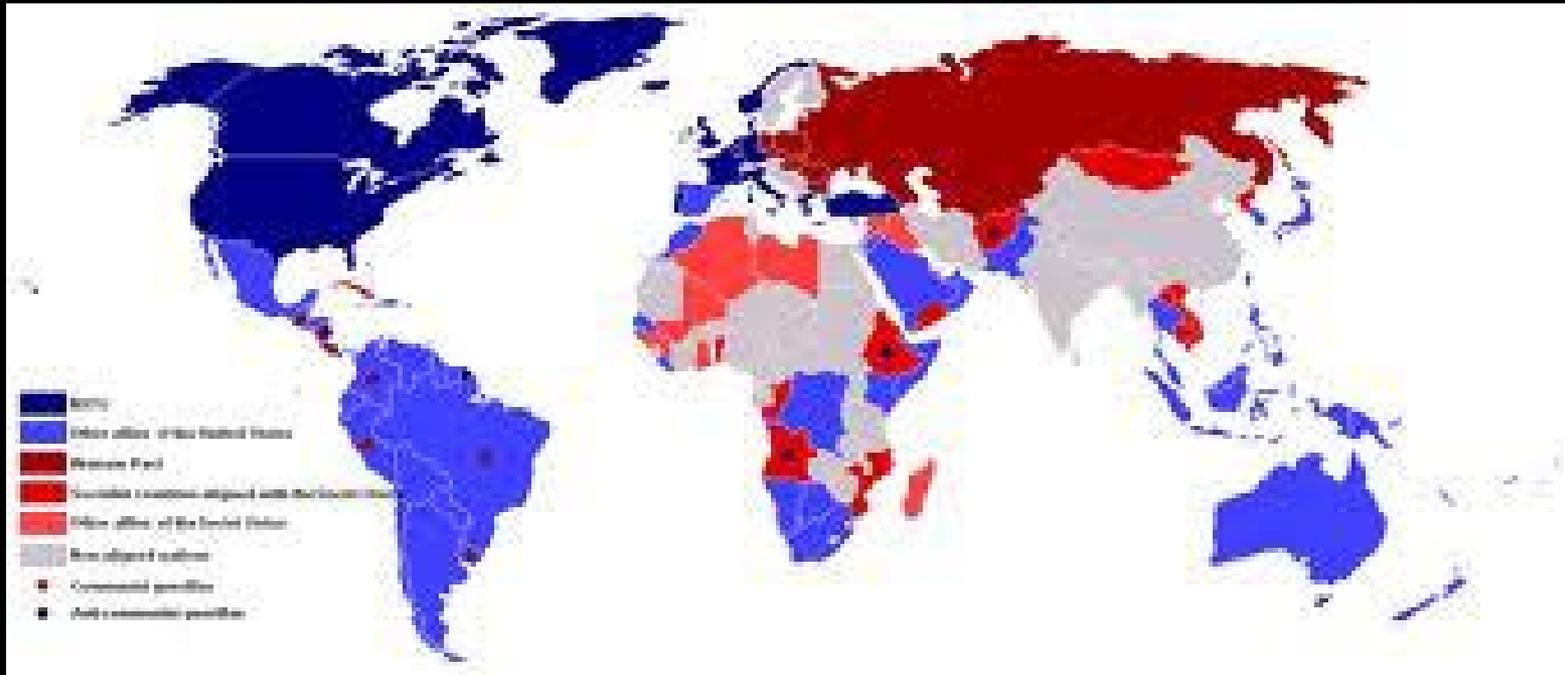
- George Kennan: "Long Telegram"(1946/2)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Foreign Affairs, 1947/7)
VS "Novikov telegram"(1946)
- George Orwell/Bernard Baruch/Walter Lippmann

2. 냉전질서의 역사



3. 냉전질서건축과 한국전쟁

한국전쟁 이후 세계냉전질서 건축완료



4. 냉전 및 한국전쟁연구사

❖ 구미 연구

제1기 : 1950년대- 전통주의: Thomas A. Bailey

제2기 : 1960년대- 수정주의: William Appleman Williams/Bruce Cumings

제3기 : 1970년대- 탈수정주의: Lewis Gaddis

제4기 : 1990년대- 이념적 경직성완화와 공산권 냉전사료공개에 따른 신냉전연구

Woodrow Wilson Center의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http://www.wilsoncenter.org/program/cold-war-international-history-project>)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http://www.wilsoncenter.org/program/north-korea-international-documentation-project>)

❖ 한국 연구

제1기 : 1950년대- 전통주의

제2기 : 1980년대- 수정주의

제3기 : 2000년대- 뉴라이트 vs. 뉴레프트

4. 냉전 및 한국전쟁연구사

❖ 북한 연구

제1기 : 1950 북한외무성 자료집

제2기 : 1861 북한 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해방전사〉

제3기 : 1981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5권 현대편 〈조국해방전사〉

❖ 중국 연구

션즈화(沈志華) 〈毛泽东·斯大林与朝鲜战争〉(2003/2007)

华东师大冷战国际史研究中心(<http://coldwarchina.org/>)

❖ 러시아 연구

A.V.Torkunov 〈The War in Korea 1950-1953〉(2000)



한반도 냉전질서의 기원

1. 부루스 커밍즈의 해석

✓ 사실상의 봉쇄정책(1945/9-)/ 실질적 봉쇄정책(1946-1948)/ 반격정책(1949년 말-)

2. 1945년 가설

✓ 미군정은 해방정국 초기부터 반공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나 좌익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좌익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3. 1946년 가설

✓ Kennan의 “Long Telegram” vs. “Novikov Telegram”

✓ 미군정은 1946년 미소공동위원회의 개최하면서 한국정치세력들의 좌우합작을 시도

“미군정이 합작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 과격세력 -이승만의 우파와 소련과 연관된 좌파- 을 제거하기를 희망하였다” (미소공위 타이어 위원) 여윤형과 김규식을 좌우합작에 포함시키려는 노력

✓ 정판사 위조지폐사건(1946/5)으로 미군정은 공산당활동을 불법화함

4. 1947년 가설

- ✓ 커밍즈는 미국의 대한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
- ✓ 트루만의 유럽중심 정치 경제적 봉쇄정책
- ✓ 7월 제2차 미소공위 결렬
- ✓ 3개 그룹의 대한정책 재검토
 - 국무 전쟁 해군성 조정위원회 소위원회인 대한특별회: 중도
 - 웨드마이어 사절단: 중도
 - 합참본부: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인하고 한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철군을 권고
- ✓ 국무부 정책기획국장 케난이 극동국장 버터워스에게 보낸 각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군부 측과 대화한 결과, 한국이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필수적이라는 인상을 받지 못했다. 만약 이것이 옳다면 우리 정책이 손실을 줄이면서 한국에서 가능한 한 품위 있고 신속하게 벗어나야 한다.”

4. 1947년 가설

- ✓ 1947/9/29 국무성 의견일치
 - 상당한 돈과 노력으로도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의 지위유지는 어렵다.
 - 극동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위신과 정치적 기반이 크게 손상되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 주한미군 철수의 악영향을 줄이면서 조기에 한국을 떠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중도노선의 지지를 통하여 4개국 공동통치를 모색하던 방향에서 우익노선에 의한 단독정부를 지원하고, 아세아에서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중요성을 감소시키고 그 공백을 일본의 강화로 메꾸어 나갔다.
- ✓ 1948/4 트루만대통령 NSC-8을 승인
 - 한계 내에서 경제 및 군사 지원을 하면서 1949년 중반까지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완결
- ✓ 1947년부터 미국은 더 이상 소련과의 협조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럽에서는 적극적인 정치 경제적 차원의 봉쇄정책을 하고, 대소 전략거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소극적인 정치 경제적 차원의 봉쇄정책을 추진.

5. 1949년 가설

- ✓ 커밍즈 NSC 48/2를 근거로 미국의 반격정책 주장
- ✓ 1949.6 주한미군 철수
- ✓ NSC 48/2는 NSC 8/2의 재확인

6. 1950년 가설

- ✓ 냉전적인 차원에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봉쇄정책은 1947년 이후 비군사적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추진되다가 한국전쟁 이후 적극적으로 수행됨



스탈린 · 마오 · 김일성과 한국전쟁

1. 1949/3 김일성 · 스탈린 모스크바회담



- 김일성: 한반도의 군사적 해방 주장
남조선의 평화통일반대, 북한군사력 우세
게릴라의 지지, 남한 인민들의 지원
- 스탈린: 남침반대의 세 이유
북한인민군 압도적으로 우세하지 않음
주한미군의 개입
38선 협정 파기로 간주하고 미국 개입 가능
남의 공격을 기다렸다가 반격하는 것이 바람직

- ✓ 1949/6/29 주한미군 철수
- ✓ 1949/8/12 김일성 박헌영-시티코프 평양회담
- ✓ 1949/8/29 소련 원폭실험성공
- ✓ 1949/9/24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북한의 대남 군사작전을 금지하는 결의 채택
- ✓ 1949/10/1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 1949/3 김일성 · 스탈린 모스크바회담

- ✓ 1949/12/16 모택동 소련방문(1950/2/17 귀국)
- ✓ 1950/1/12 미국 애치슨독트린 발표
- ✓ 1950/1/17 박헌영 주최 만찬에서 김일성이 시티코프에게 대남공격 승인요청
- ✓ 1950/1/30 시티코프에게 보내는 스탈린의 편지

김일성의 대남 대사업에는 대규모의 준비 필요

김일성이 이 문제로 나와의 회담을 바란다면 나는 김일성을 환영하여 맞아들이고 회담준비를 갖추겠다.

이 사실을 그에게 알리고, 소련이 북한을 도울 용의가 있음을 전하기 바란다.

2. 1950/3/30-4/25 김일성 · 스탈린 모스크바회담



1950년 4월 소련을 방문한 김일성(우측)의 모습
이때 스탈린은 김일성의 남침계획에 동의했다.

- 김일성: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4대 이유
 - 기습공격해서 3일내 승리
 - 남로당원 20만 명 봉기
 - 남한게릴라의 북한인민군 지원
 - 미국 참전할 시간 없음(문일의 보고, 김일성 통역)
- 스탈린
 - 중국공산당의 승리, 소련의 핵개발, 나토수립과 서방관계악화, 미국의 아시아군사개입의지 약화에 따라 한국전쟁에 대한 입장 바꿈
 - 북한의 3단계 남침작전 합의: 1) 38선에 병력 집중 2) 대남 평화통일 제안 3) 남한의 평화통일제안 거부 이후 군사 활동 개시
 - 옹진반도 전선에서 속전속결을 벌여 이남과 미국이 제대로 반격 또는 국제지원을 못 받도록 할 것.
 - 소련의 직접 참전 절대 불가
 - 중국의 지원 반드시 필요

3. 1950/5/13-5/15 김일성 · 모택동 베이징회담



- 김일성: 스탈린과 합의한 해방전쟁계획을 밝히고 중국의 지원을 요청
- 모택동: 미국과 일본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이 개입하면 북한에 군사원조 제공할 것임

- ✓ 1950/6/25 한국전쟁 발발
- ✓ 1950/6/28 북한군 서울 점령. 미국 트루먼 대통령 한국 원조를 명령
- ✓ 1950/9/28 유엔군 서울탈환
- ✓ 1950/9/30 김일성 박헌영 소련 및 중국에게 군사원조 요청편지 보냄
- ✓ 1950/10/13 중국 인민지원군의 한국출동결정
- ✓ 1950/10/19 유엔군 평양 점령
- ✓ 1950/10/25 중국군 한국전선 투입
- ✓ 1951/1/4 유엔군 서울 포기 철수
- ✓ 1951/3/14 유엔군 서울 재탈환
- ✓ 1951/7/10 휴전회담시작



이승만, 미국과 한국전쟁



- ✓ 1945.10.16. 이승만 귀국
- ✓ 1945.10.21. 공산당에 대해 조심스러운 발언
 “나는 공산당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주위에 대하여서도 찬성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세울 때에 공산주의를 채용할 점이 많이 있다.” (서울 중앙방송)

✓ 1945.12.17. 한국은 지금 형편으로 공산당 극렬파들의 파괴주의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서울 중앙방송)

✓ 1946.3.17.

“나는 소련기자가 나의 개인공격을 한 이유를 이해치 못하는 것이다. 세계평화를 위하여는 조소상호간의 친밀이 필요한 것이며 또 소련은 조선의 우호국이다. 우리는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 1946.3.22.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시작

✓ 1946.4.16. “워싱턴 스타” 지의 기고에서 친미반소의 입장을 명백히 밝힘

✓ 1946.12.-1947.3. 미국 방문 후 트루만 독트린과 함께 친미친소 본격화

✓ 1949.9. 올리버에게 보낸 “북진론” 편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공격을 해서 북한 공산군 중에 우리에게 충성하려는 사람들과 합세하여 잔당들을 평양에서 소탕해야 할 가장 심리적인 호기라고 나는 강하게 느끼고 있소.”

✓ 1949.10.22. 올리버에게 보낸 편지

“10만 병력의 우리 육군은 당연히 받아야 할 장비도 무장도 갖추지 못하였소.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그대로 만일 북한 공산군이 전면 침공으로 내려오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할 충분한 탄약조차 가지고 있지 않소. 내가 불평불만을 일삼는 것처럼 모이고 싶지 않으나 우리들의 상황은 거의 절망적이지요.”

참고자료

- ✓ 하영선 편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 전통주의와 수정주의를 넘어서〉(나남,1990)
- ✓ 하영선 “한국사의 미래를 위한 한국전쟁사가 필요하다” 동북아역사재단뉴스레터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rrectasia&logNo=50089925700>) (2000/6/16)
- ✓ Woodrow Wilson Cente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http://www.wilsoncenter.org/program/cold-war-international-history-project>)
- ✓ Woodrow Wilson Center,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http://www.wilsoncenter.org/program/north-korea-international-documentation-project>)

제 6 회

III. 냉전질서

미중 데탕트와 남북7.4공동성명의 명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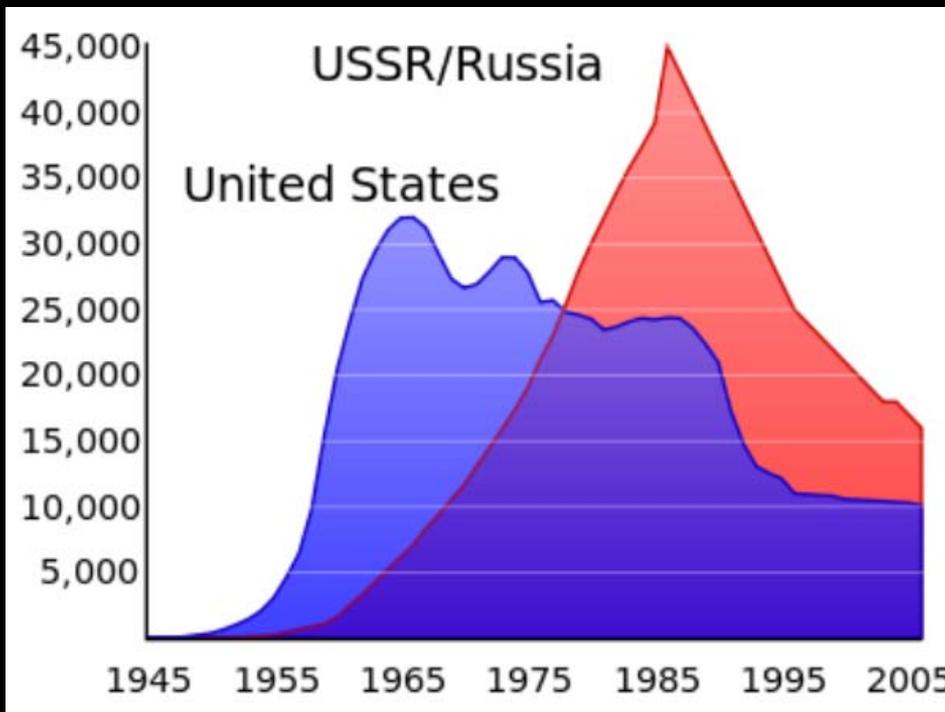




들어가는 말

1. 데탕트의 의미

2. 데탕트의 요인



◀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보유량

3. 데탕트의 주요사건

- 1969.11. SALT 1 협상 시작
- 1972.2. 닉슨의 중국방문
- 1972.5. 닉슨-브레즈네프 정상회담
SALT 1
- 1975. 헬싱키 합의
- 1979.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4. 데탕트와 한반도

- 키신저-주은라이 비밀협상
- 박정희-애그뉴 회견
- 이후락-김일성 회견

5. 데탕트의 복합적 재구성





키신저-주은라이 비밀협상

- ✓ 1970.10. 협상타진 재시도/파키스탄/루마니아/파리
- ✓ 1970.12. 파키스탄 주은라이 메시지 전달
- ✓ 1971.4. 미중 핑퐁외교
- ✓ 1971.4.27. 파키스탄 주은라이 메시지(4/21) 전달
- ✓ 1971.7.9-7.11. 키신저-주은라이 1차 비밀협상
- ✓ 1971.10.20-10.26. 키신저-주은라이 2차 비밀협상
- ✓ 1972.1.3-1.7. 헤이그-주은라이 협상
- ✓ 1972.2.21-2.28. 닉슨의 중국방문



1. 중국방문

2. 대만

3. 인도차이나

4. 한반도

❖ 미국: The United States will maintain its close ties with and support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will support eff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eek a relaxation of tension and increased commun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 중국: 坚决支持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一九七一年四月十二日提出的朝鲜和平统一的八点方案和取消“联合国韩国统一复兴委员会”的主张

4. 한반도

❖ 1차협상

✓ Kissinger “ We still have about 40,000 there. This process of reductions can continue as political relations in the Far East improve, by a gradual process after a few years there will be either very few or no U.S. troops left there.”

❖ 2차협상

✓ 주은라이: 북한의 “8개항의 평화통일방안”(1971/4/12) 전달

✓ Kissinger “If the objective is to bring about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o avert the danger of war, and to lessen the expansion of other powers into that area, then I think that Chinese and American interests could be quite parallel. But the objective is to undermine the existing government in South Korea and make it easier for the North Koreans to attack South Korea or to bring pressure on South Korea, then, of course, a different situation exists. So we have no problem about cooperating with you in bringing about a more permanent legal status for the Korean Peninsula.....,”

5. 일본

6. 인도/파카스탄

7. 소련

✓ Both sides are of the view that it would be against the interests of the peoples of the world for any major country to collude with another against other countries, or for major countries to divide up the world into spheres of interest.

✓ 双方都认为，任何大国与另一大国进行勾结反对其他国家，或者大国在世界上划分利益范围，那都是违背世界各国人民利益的。



박정희-애그뉴 회견

- ✓ 1969.7. 닉슨대통령의 Guam 독트린 선언
- ✓ 1969.8. 박정희-닉슨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 ✓ 1970.3.27. 박대통령 Porter 면담: 주한미군 감축
- ✓ 1970.4.20. 박대통령 닉슨 미대통령 앞 친서
- ✓ 1970.5.26. 닉슨대통령의 회한
- ✓ 1970.6.15. 닉슨대통령의 회한에 대한 박대통령의 친서
- ✓ 1970.7.7. 닉슨대통령의 회한
- ✓ 1970.7.12. 박대통령의 주한미군감축에 대한 한미교섭지침하달
- ✓ 1970.8.3. 박대통령의 포터대사/미이케리스 유엔군사령관면담
“일방적으로 철수하려면 하라, 그러나 이에 대하여 우리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 ✓ 1970.8.24-26. 박대통령-애그뉴 미부통령 3차 회견
대한방위공약/감군문제/현대화/추가감축문제/협의기구/닉슨독트린과 자주국방/
양해사항



❖ 8월 25일 오전 10시-오후 4시

(최규하 외무부장관, 포터 주한 미대사, 김정렴 비서실장 배석)

- 애그뉴 부통령: “닉슨독트린” 의 기본구상 설명 후 대한방위공약 재확인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 불가피성 설명
- 박대통령: 한반도 휴전 이래 준전시상태/1968년 이래 북한의 무력도발 증가
주한미군감축은 대북 억지력을 약화하고, 잠재적 침략자들의 오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참화 /한
반도의 안전과 평화유지는 한국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시아, 특히 일본의 안보에 직결되며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
화유지상 극히 긴요
- 애그뉴 부통령: troop withdrawal + military modernization program
- 박대통령: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2만명 이하의 감축문제에 대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한국군의 장비현
대화과 군사력증강 및 장래 한국의 안보에 대한 보장이 없는 감축은 찬동할 수 없고, 이를 위하여 현재 한미 양측
의 고위군사실무자간에 진행되고 있는 한국군현대화에 대한 회담을 더욱 촉진하고, 아울러 한국군현대화에 대한
회담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주한미군감축문제도 논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군사회담에서도 다루기로 한다.
- 애그뉴 부통령: “The United States takes the position that reduction is nor contingent upon
modernization, nor is modernization contingent upon reduction. Nonetheless, we would not reduce
forces beyond a level that would keep the security of Korea intact. That was the scope of that meeting”

❖ 1990.8.26. 3차 회담 08시 30분-10시

➤ 박대통령-애그뉴 부통령에 관한 발표문

“.....그들은 한국군의 방위능력을 증강하기 위한 장비 현대화에 관한 양국정부 대표자 간의 회담은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으며, (.....)한국의 장래 안전보장문제에 관한 협의와 주한미군 감축문제에 관한 협의를 동시에 개시하도록 각자의 보좌관들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



이후락-김일성 비밀회담



▲ 1972.5



▲ 1972.11.3

❖ 1차회담

✓ 일시: 1972.5.4 00시15분-01시30분

✓ 장소: 평양 만수대 김일성 관저

✓ 참석자

남: 이후락/정홍진

북: 김일성/박성철/김영주/김종린/유장식/김덕현

➤ 북:우리는 어떤고 하니 통일문제의 외세의존 반대입니다. 우선 이 것이 박대통령과의 의견 일치입니다..... 오늘 싸움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하자는데 박대통령과 생각이 같고 외세배격하고 자주적으로 하자는데 뜻이 같으니 이 것을 박대통령에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래서 민족단결하여야 합니다.....같은 민족끼리 갈라져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울 것 무엇 있습니까? 통일을 하자면 단결하는 원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 남: 지금 말씀이 박대통령의 생각과 꼭같은 생각입니다. 박대통령께서도 항상 우리민족의 문제는 제3국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통일문제를 생각하시는데 있어서도 김수상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 북:이부장의 말씀을 들으면 박대통령과의 완전 의견 일치입니다. 3가지 통일원칙, 단결, 평화, 외세배격,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 남: 3가지 원칙을 통일의 기둥으로 삼고 통일은 꼭 이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대통령의 의견도 동일합니다.

❖ 2차회담

- ✓ 일자: 1972.5.4. 13시00분-14시10분
- ✓ 장소: 평양 만수대 김일성관저
- ✓ 참석자: 상동

- 북: 박대통령이 외세배격하고 외세에 의해서 통일문제 해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러한 우려가 없어졌고 또 남조선은, 남침한다고 우려했는데 <내가 전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런 우려 없어졌고 남은 문제는 민족단결을 위해서 이념을 초월하여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 1970/1/18

✓ A farewell visit of Bulgarian Ambassador Misho Nikolovo

✓ Kim Il Sung “In our opinion,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our efforts for (achieving) a solution is (our effort to facilitate) the growth of the South Korean revolutionary forces and carry out the South Korean revolution. In our view, the essence of the solution is the following: the South Korean people should overthrow Park Chung Hee, seize power, and start negotiations with the DPRK about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motherland. We do not want to negotiate with Park Chung Hee, because he is a national traitor, a servant of American imperialism.....If Kim Dae-jung, the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oppositional New Democratic Party, wins next presidential elections, we will negotiate with him.”

❖ 1971/6/10

✓ Conversation on the occasion of the Party and Government Delegation on behalf of the Romanian Socialist Republic to the DPRK

✓ Kim Il Sung “Should Park Chung Hee be overthrown, we will be able to discuss the unification of our country with anyone who desires this. This is the current situation. The evolution of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depends on the struggle of democratic forces; on the struggle of the) South Korean people.

❖ 1972/1/1

✓ 박정희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북한 측에서 주장하는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그 어휘를 보면 「평화」란 말이 붙어 있어서 대단히 듣기 좋은데 과연 그것이 진심이냐 하는 것이 문제다.... 이 내용을 보면 결국 남한에 있는 미군은 전부 다 나가고 군대는 10만 이하로 줄이고 앞으로 외부에서부터 무기는 절대 들어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휴전협정을 없애버리자, 이런 뜻인데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 국방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놓고, 앞으로 적당한 기회가 오면 무력으로 남침을 해서 적화통일을 하자,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참고자료

1. Henry Kissinger-주은라이(周恩來)

• 참고사이트

1)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The Beijing-Washington Back-Channel and Henry Kissinger's Secret Trip to China*

관련링크 : <http://www.gwu.edu/~nsarchiv/NSAEBB/NSAEBB66/>

2)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Negotiating U.S.-Chinese Rapprochement*

관련링크 : <http://www.gwu.edu/~nsarchiv/NSAEBB/NSAEBB70/>

2. 박정희- Spiro T. Agnew

• 참고서 : 김정렴, "한국경제정책30년사", 2006

• 참고사이트

1) 吳源哲씨(전 대통령 제2경제수석/박정희 시절 중화학 담당)의 사이트

관련링크 : <http://www.ceoi.org>

2)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Editors: Daniel J. Lawler Erin R. Maha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2010

관련링크 : <http://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9-76v19p1>

3. 이후락-김일성

• 참고사이트

Woodrow Wilson Center,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The Rise and Fall of De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1970-1974: A Critical Oral History*>

관련링크 : <http://www.wilsoncenter.org/publication/the-rise-and-fall-d%C3%A9tente-the-korean-peninsula-1970-1974>

제 7 회

IV. 복합질서

미중의 미래: 신형대국관계





들어가는 말

1. 냉전에서 복합으로



▲ May 1st parade at the Red Square, 1982



▲ Berlin Wall, 1989



◀ August Coup at the Red Square, 1991

2. 복합세계정치론의 등장

1) 주인공의 복합화 : 국가+초국가그물망+국가내부그물망

늑대거미 ▶



단순

이중

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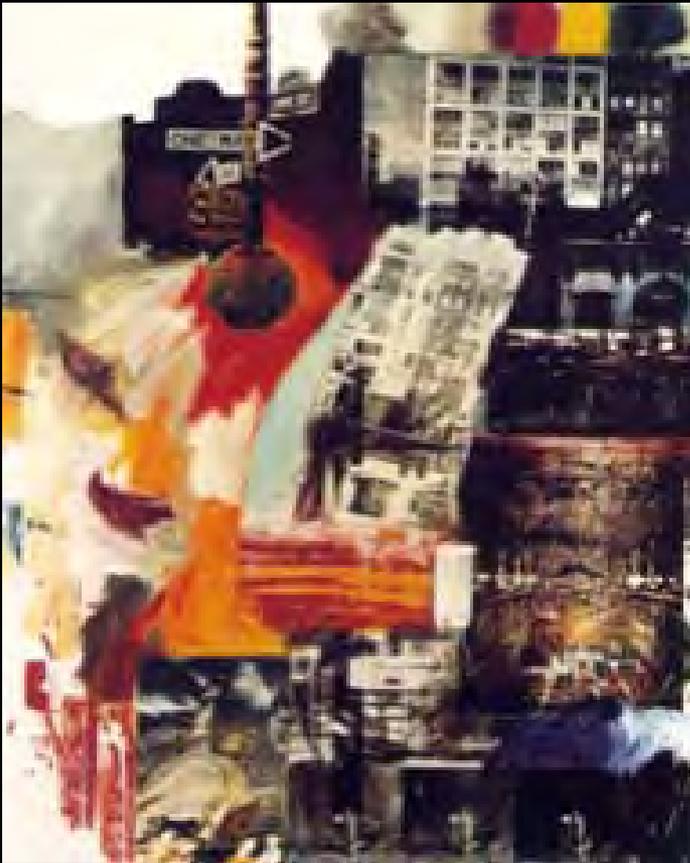
2. 복합세계정치론의 등장

2) 무대의 복합화 : {(안보/경제)+문화/환경} ⊆ 지식 ⊆ 통치



2. 복합세계정치론의 등장

3) 복합연기: 경쟁, 협력 그리고 공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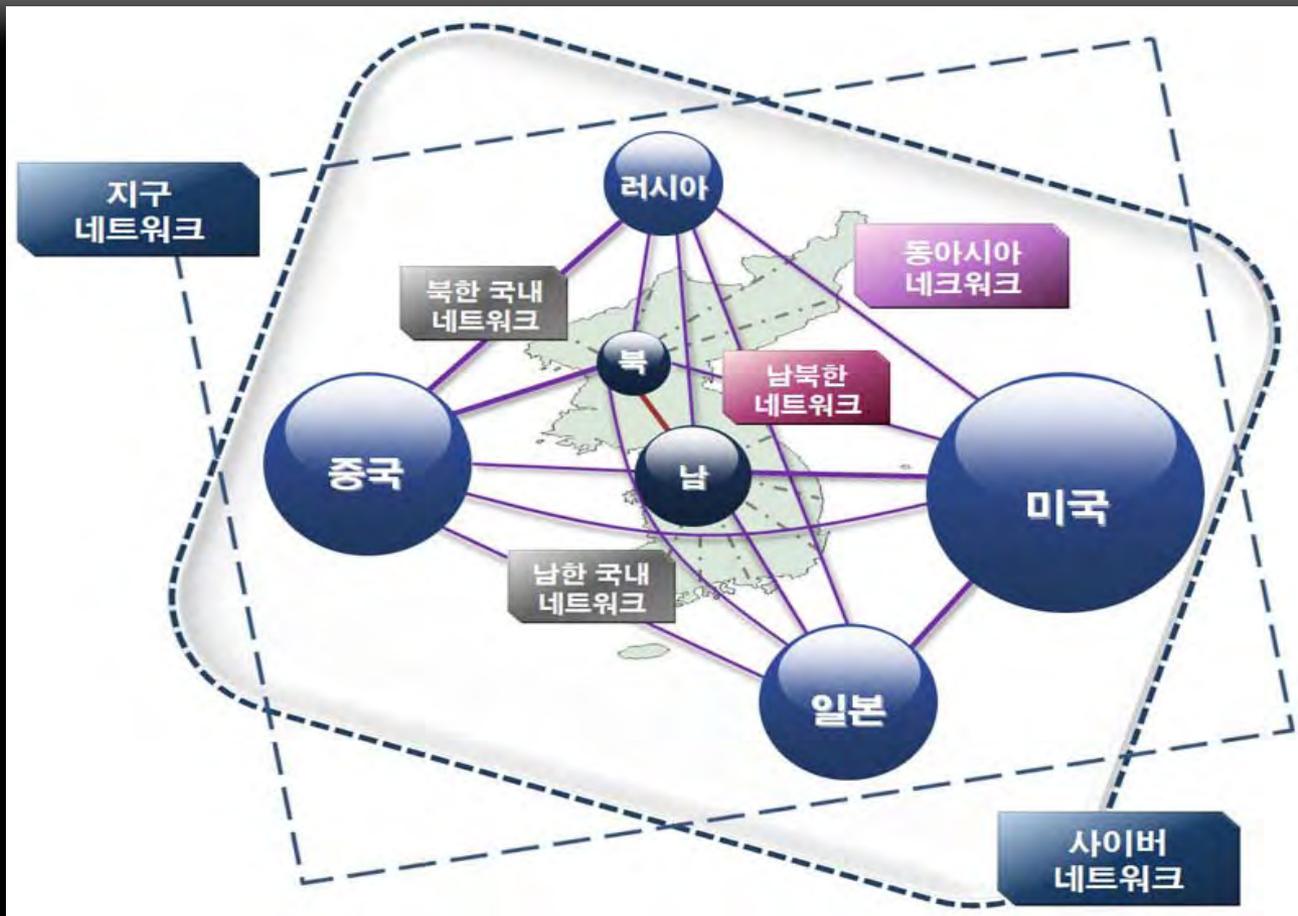


◀ Robert Rauschenberg's Estate

❖ 복합세계정치론

- 1막: 탈냉전과 복합세계정치론
- 2막: 복합세계정치의 역사적 인
- 3막: 복합세계정치론과 꿈 의존성
- 4막: 복합세계정치학의 실천적 미래

3. 미중주도의 복합 동아시아질서





중국의 부상과 신형대국관계

세계 10대 경제국가의 변화추세 1990-2015

nominal GDP in IMF, World Bank, and United Nations lists (in USD billions)

Year	1st	2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10th
2015 (IMF Forecas)	 U. S. 17,783.568	 China 10,581.052	 Japan 6,372.229	 Germany 3,741.142	 France 2,984.399	 Brazil 2,871.852	 U. K. 2,850.733	 Russia 2,658.919	 India 2,384.470	 Italy 2,157.870
2010	 U. S. 14,526.550	 China 5,930.393	 Japan 5,488.424	 Germany 3,286.451	 France 2,562.759	 U. K. 2,263.099	 Brazil 2,142.926	 Italy 2,060.887	 India 1,597.945	 Canada 1,577.040
2005	 U. S. 12,599.260	 Japan 4,552.194	 Germany 2,790.003	 U. K. 2,281.039	 China 2,272.181	 France 2,146.943	 Italy 1,778.723	 Canada 1,133.759	 Spain 1,130.823	 Brazil 884.760
2000	 U. S. 9,916.360	 Japan 4,667.449	 Germany 1,902.080	 U. K. 1,478.541	 France 1,329.736	 China 1,196.599	 Italy 1,098.416	 Canada 724.916	 Brazil 643.950	 Mexico 630.028
1995	 U. S. 7,377.743	 Japan 5,264.380	 Germany 2,523.455	 France 1,570.750	 U. K. 1,157.245	 Italy 1,126.249	 Brazil 769.214	 China 737.638	 Spain 596.928	 Canada 590.506
1990	 U. S. 5,770.043	 Japan 3,048.709	 Germany 1,658.649	 France 1,245.813	 Italy 1,134.137	 U. K. 1,014.328	 Soviet Union 777.171	 Canada 582.731	 Spain 520.872	 Brazil 457.291



오바마-시진핑 2012.2.14.

1. 胡锦涛在纪念改革开放30周年大会讲话(2008/12/18)

- ✓ 第一次革命:孙中山 辛亥革命
- ✓ 第二次革命:中国共产党 新民主主义革命/社会主义革命
- ✓ 第三次革命:中国共产党 改革开放。

“我们的伟大目标是，到我们党成立100年时建成惠及十几亿人口的更高水平的小康社会，到新中国成立100年时基本实现现代化，建成富强民主文明和谐的社会主义现代化国家”

2. 杨洁篪：十年来我国外交工作的回顾与展望(2012/10/16)

- ✓ 和平发展道路的根本方略/互利共赢的开放战略/和平, 共同繁荣的和谐世界/总体外交布局
- ✓ 维护国家主权、安全和发展利益/构建新型大国关系/坚持“与邻为善、以邻为伴”方针/发展中国家的团结/发挥负责任的大国作用
- ✓ 建立新型国际关系

3. 戴秉国：中美第一轮战略与经济对话(2009/7/28)

“核心利益 (core interests)”

- (1) 维护基本制度和国家安全 (Preserving China's basic state system and national security)
- (2) 国家主权和领土完整 (National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 (3) 经济社会的持续稳定发展
(The continued stable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and society)

4. 习近平在美国友好团体欢迎午宴上的演讲(2012/2/15)

✓ 进入本世纪第二个10年，中美关系站在新的历史起点上。我们应该认真落实去年1月胡锦涛主席同奥巴马总统就建设中美合作伙伴关系达成的重要共识，拓展两国利益汇合点和互利合作面，推动中美合作伙伴关系不断取得新进展，努力把两国合作伙伴关系塑造成21世纪的新型大国关系。为此，双方可在以下4个方面共同作出努力。

1. 相互理解和战略信任
2. 核心利益和重大关切
3. 互利共赢的格局
4. 国际事务和全球性问题

5. 胡锦涛出席第四轮中美战略与经济对话开幕式并致辞(2012/5/4)

✓ 胡锦涛强调，中美分别是当今世界最大的发展中国家和最大的发达国家，中美关系持续健康稳定向前发展，不仅能给两国人民带来实实在在的利益，而且将为促进世界和平、稳定、繁荣作出宝贵贡献。无论国际风云如何变幻，无论中美两国国内情况如何发展，双方都应该坚定推进合作伙伴关系建设，努力发展让两国人民放心、让各国人民安心的新型大国关系



기성대국 미국과 신흥대국 중국



1. Hillary Clinton Remarks at the U.S. Institute of Peace China Conference (2012/3/7)

- ✓ We are now trying to find an answer, a new answer to the ancient question of what happens when an established power and a rising power meet. We need a new answer. We don't have a choice. Interdependence means that one of us cannot succeed unless the other does as well. We need to write a future that looks entirely different from the past. This is, by definition, incredibly difficult. But we have done difficult things before.
- ✓ There is no intrinsic contradiction between supporting a rising China and advancing America's interests. A thriving China is good for America, and a thriving America is good for China.
- ✓ So to those who ask, "Is the United States attempting to contain China?" Our answer is a clear no. In fact, the United States helped pave the way for China to be where it is today in its own development.

2.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2011/10/11)

6 key lines of action

- Strengthening bilateral security alliances
- Deepening our working relationships with emerging powers, including with China
- Engaging with regional multilateral institutions
- Expanding trade and investment
- Forging a broad-based military presence
- Advanc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3. Hillary Clinton Remarks With Chinese Foreign Minister Yang Jiechi (2012/9/5)

✓ As I have said before, our two nations are trying to do something that has never been done in history, which is to write a new answer to the question of what happens when an established power and a rising power meet. Both President Obama and I have said frequently that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rise of a strong, prosperous, and peaceful China. We want China to continue to succeed in delivering economic opportunity to the Chinese people. That will, in turn,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We want China to play a greater role in world affairs. That strengthens global stability, helps solve urgent challenges.

4. Remarks by the President Obama and Governor Romney in the Third Presidential Debate(2012/10/23)

✓ China is both an adversary but also a potential partn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f it's following the rules. So my attitude coming into office was that we are going to insist that China plays by the same rules as everybody else.

And we believe China can be a partner, but we're also sending a very clear signal that America is a Pacific power, that we are going to have a presence there. We are working with countries in the region to make sure, for example, that ships can pass through, that commerce continues. And we're organizing trade relations with countries other than China so that China starts feeling more pressure about meeting basic international standards. That's the kind of leadership we've shown in the region. That's the kind of leadership that we'll continue to show.



미중2021/미중2049



1. 현실주의/자유주의/구성주의/복합주의

2. 미중 2012-2021

3. 미중 2021-2049

참고자료

- ✓ 하영선 〈하영선국제정치칼럼 1991-2011〉 상/하 (동아시아연구원,2012)
- ✓ 하영선 김상배편 〈복합세계정치론: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 (한울,2012)
- ✓ US Department of State(<http://www.state.gov>)
- ✓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http://www.fmprc.gov.cn/chn/gxh/tyb/>)

제 8 회

IV. 복합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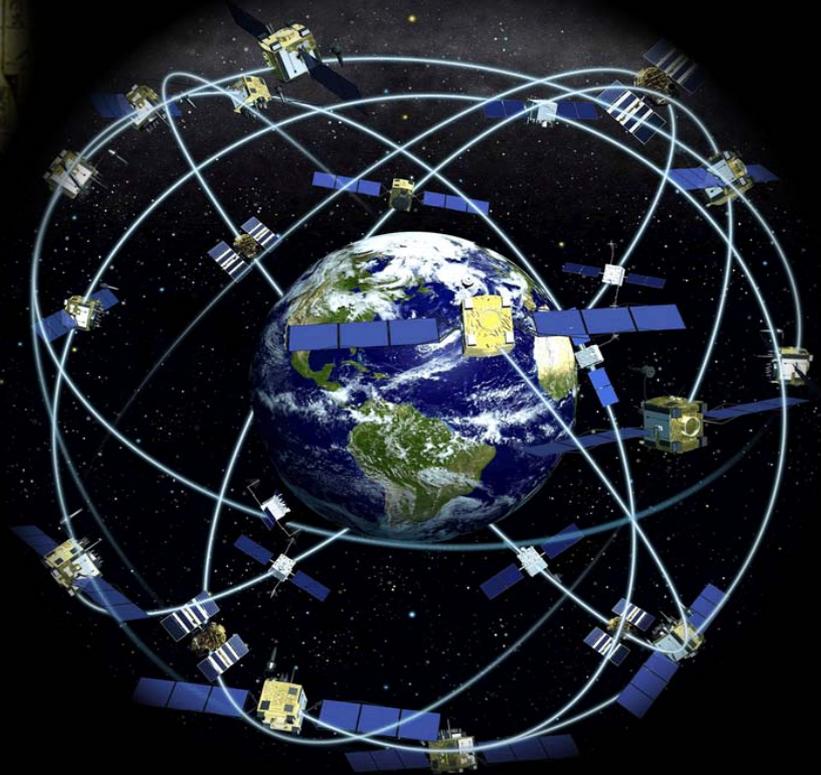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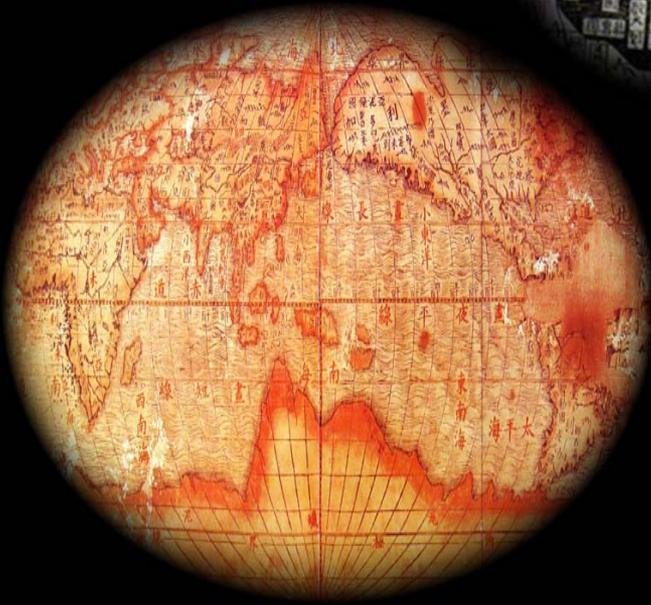
동아시아 복합질서의 미학





들어가는 말

1. "동아시아질서의 역사적 변환"에서
"동아시아질서건축사: 고대 천하에서 미래 복합까지"



2. 신질서건축의 미학

❖ Antonio Gaudi (1852-1926)

- Basílica i Temple Expiatori de la Sagrada Família (Basilica and Expiatory Church of the Holy Family, or Sagrada Família) (1882-2026)
- the Apse façade , North (1882-1894)
- the Nativity façade, East (1894-1930)
- the Passion façade, West (1954-1976)
- the Glory façade, South (2002-)



▲ 1883

2. 신질서건축의 미학



◀ 1908 the Nativity façade



◀ 2012

20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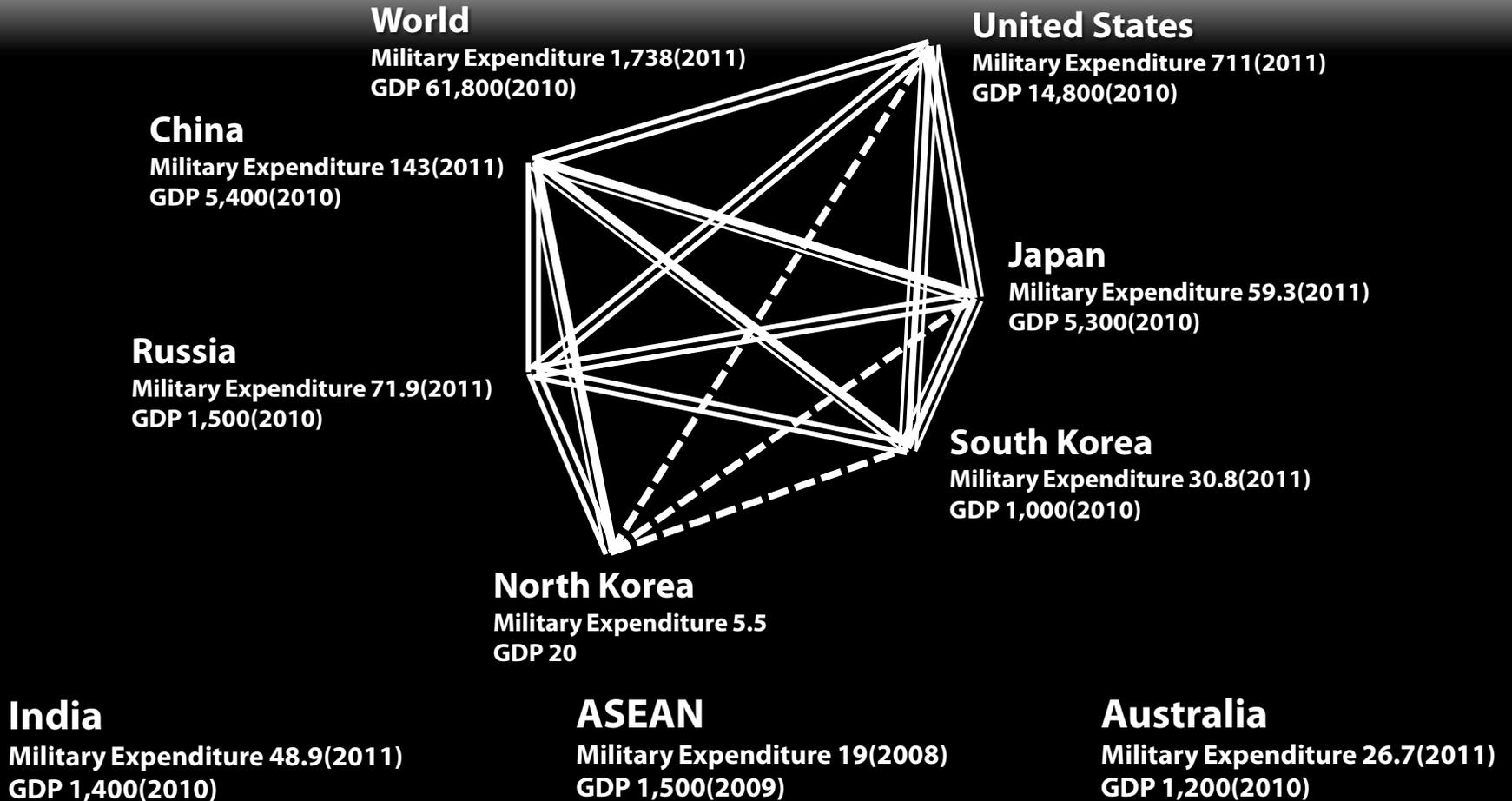




동아시아 세력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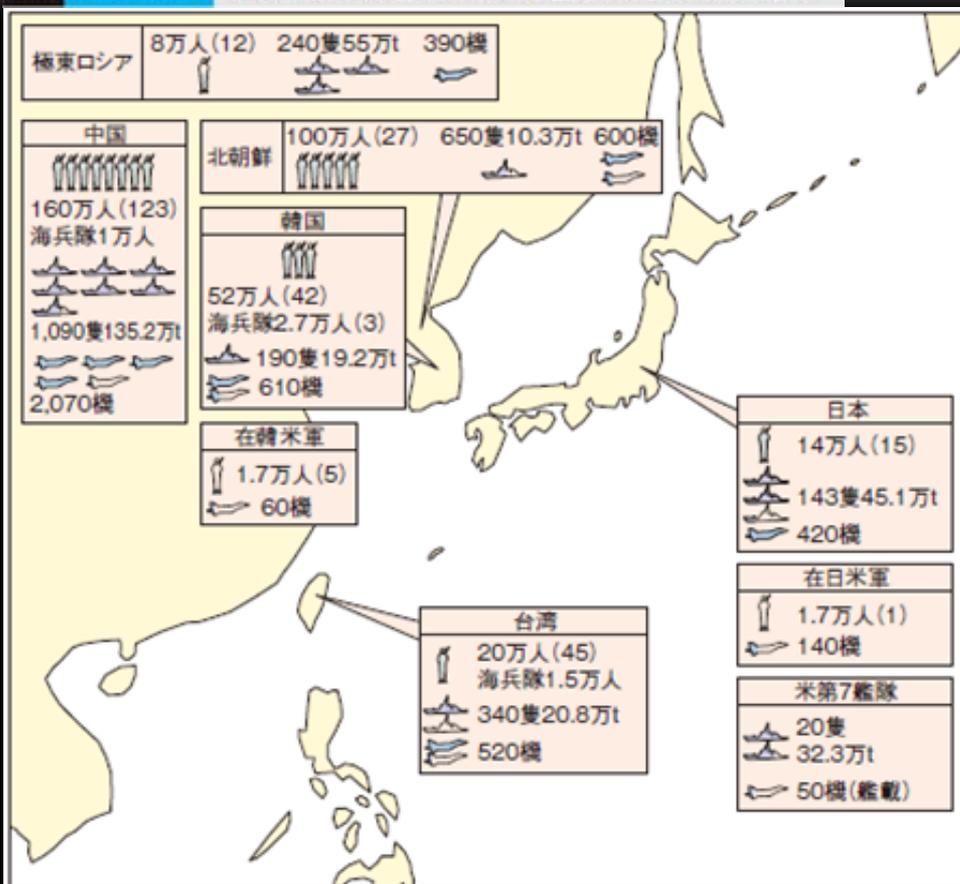
1. 동아시아 세력분포도

Billion US\$



2. 동아시아 병력 무기 배치도

図表 1-0-0-1 아시아太平洋地域における主な兵力の状況(概数)



- (注) 1 資料は、米国防省公表資料、ミリタリーバランス(2012)などによる。
 2 日本については、平成23年度末における各自衛隊の実勢力を示し、作戦機数は空自の作戦機(輸送機を除く。)および海自の作戦機(固定翼のみ)の合計である。
 3 在日・在韓駐留米軍の陸上兵力は、陸軍および海兵隊の総数を示す。
 4 作戦機については、海軍および海兵隊機を含む。
 5 ()内は、師団、旅団などの基幹部隊の数の合計。北朝鮮については師団のみ。台湾は憲兵を含む。
 6 米第7艦隊については、日本およびグアムに前方展開している兵力を示す。

凡例

	陸上兵力 (20万人)		艦艇 (20万t)		作戦機 (500機)
--	-------------	--	-----------	--	------------

3. 미해군 항공모함 지구배치 현황



ATLANTIC CARRIERS	HOME PORT	AS OF	NOTES
• CVN 65 Enterprise	Norfolk, Va.	7/18/12	Conducting maritime security operations and support missions in the U.S. 5th Fleet AOR
• CVN 69 Dwight D. Eisenhower	Norfolk, Va.	7/18/12	Conducting maritime security operations and support missions in the U.S. 5th Fleet AOR
⊕ CVN 71 Theodore Roosevelt	Norfolk, Va.	9/29/09	Undergoing a three-year refueling complex overhaul in Newport News, Va., until late 2012
• CVN 72 Abraham Lincoln	Norfolk, Va.	7/18/12	On a scheduled port visit to Antalya, Turkey
• CVN 75 Harry S. Truman	Norfolk, Va.	7/18/12	Under way in the Atlantic Ocean conducting flight deck certification and carrier qualifications
⊕ CVN 77 G.H.W. Bush	Norfolk, Va.	7/18/12	Returned to home port
PACIFIC CARRIERS	HOME PORT	AS OF	NOTES
• CVN 68 Nimitz	Everett, Wash.	7/18/12	Under way in the Pacific Ocean participating in RIMPAC exercises
⊕ CVN 70 Carl Vinson	San Diego, Calif.	7/18/12	In home port
• CVN 73 George Washington	Yokosuka, Japan	7/18/12	Under way in the South China Sea
• CVN 74 John C. Stennis	Kitsap-Bremerton, Wash.	7/18/12	Under way in the Pacific Ocean
⊕ CVN 76 Ronald Reagan	San Diego, Calif.	1/20/12	Undergoing a DPMA maintenance period in Kitsap-Bremerton, Wash.
BIG-DECK AMPHIBIOUS WARFARE SHIPS	HOME PORT	AS OF	NOTES
• LHA 5 Peleliu	San Diego, Calif.	7/18/12	Under way in the Pacific Ocean
⊕ LHD 1 Wasp	Norfolk, Va.	7/18/12	In home port
• LHD 2 Essex	San Diego, Calif.	7/18/12	Under way in the Pacific Ocean participating in RIMPAC exercises
⊕ LHD 3 Kearsarge	Norfolk, Va.	7/18/12	In home port
⊕ LHD 4 Boxer	San Diego, Calif.	12/14/11	Undergoing repairs and upgrades
⊕ LHD 5 Bataan	Norfolk, Va.	7/18/12	In home port
⊕ LHD 6 Bonhomme Richard	Sasebo, Japan	7/18/12	In home port
• LHD 7 Iwo Jima	Norfolk, Va.	7/18/12	Supporting maritime security operations and theater security cooperation efforts in the U.S. 5th Fleet AOR
⊕ LHD 8 Makin Island	San Diego, Calif.	7/18/12	In home port

● At sea
 ⊕ Home port
 Change since last week
 Nondeployable

Refueling Complex Overhaul (RCOH-12 months)
 Planned Incremental Availability (PIA-6 months)
 Docking Planned Incremental Availability (DPIA-11 months)
 Docking Selected Restricted Availability (DSRA-6 months)



동아시아 신질서 건축설계도

1. 미국

- ✓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2011/11)



"our work will proceed along six key lines of action: strengthening bilateral security alliances; deepening our working relationships with emerging powers, including with China; engaging with regional multilateral institutions; expanding trade and investment; forging a broad-based military presence; and advanc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1. 미국

✓ Secretary of Defense, Leon E. Panetta, "Shangri-La Security Debate" (2012/6/2)



"Our approach to achieving the long-term goal in the Asia-Pacific is to stay firmly committed to a basic set of shared principles -- principles that promote international rules and order to advance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deepening and broadening our bilateral and multilateral partnerships, enhancing and adapting the U.S. military's enduring presence in this region, and to make new investments in the capabilities needed to project power and operate in Asia-Pacific."

2. 중국

✓ 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大会开幕 胡锦涛作报告 (2012/11/8)



- 在谈到全面建成小康社会和全面深化改革开放的目标时，胡锦涛指出，综观国际国内大势，我国发展仍处于可以大有作为的重要战略机遇期。我们要确保到二〇二〇年实现**全面建成小康社会**宏伟目标。
- 要全面加强军队革命化现代化正规化建设。积极稳妥进行国防和军队改革，推动中国特色军事变革深入发展。中国奉行**防御性的国防政策**，加强国防建设的目的是**维护国家主权、安全、领土完整**，保障国家和平发展。

✓ 戴秉国：促进中美在亚太地区良性互动 (2012/5/3)

- 亚太是中美利益交融最集中、互动最频繁的地区，构建中美新型大国关系之路应始于亚太。
- 中美在亚太互动要秉持以下原则：一是相互尊重、增进互信。二是平等互利、和睦共赢，谋求共同发展。三是开放包容、循序渐进，共同推动区域合作机制发展。四是求同存异、共担责任，以合作求共同安全，妥善处理地区热点问题。
- 中美不搞“两国集团”（G2），不搞中美主宰世界，也不搞中美冲突对抗，但可以搞“两国协调”（C2），加强沟通、协调与合作，努力摸索出和平相处、密切合作、共同发展的崭新模式。

3. 일본

- ✓ 玄葉外務大臣講演「日本の豊かさはアジア太平洋地域とともに」(2011/12/14)



“日本がアジア太平洋地域でネットワーク創りを主導するためには、日米同盟の深化が重要です。今後も日米同盟が日本外交の基軸で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ありません。同時に、アジアの一員である日本が、アジアの主要国であり、我が国と一衣帯水の関係にある中国と手を携えて、アジア太平洋諸国と豊かで安定した秩序を形成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認識しています。それによって初めて、米中両国を含む地域諸国が自らの意思で参加するネットワークとルール創りを主導し、アジア・太平洋地域に新たな秩序をもたらすことが可能となると思います。”

4. 러시아

✓ Russian Foreign Minister Sergey Larov at the National Assembly (2011/6/30)

아시아-태평양

- ✓ 전략적 파트너 : 중국, 아세안, 한국
- ✓ 인접국가 : 일본
- ✓ 동아시아정상회의
- ✓ 러시아-중국 이니셔티브 : 아태신안보체제
- ✓ 상하이협력기구
- ✓ 다자그물망외교 : BRICS



**중견국 한국의
동아시아신질서 건축설계도**

1. 5중 복합그물망 짜기

A. 동아시아 복합그물망

① 한미복합동맹의 긴밀성 심화

- ✓ 국가 + 그물망
- ✓ 복합동맹

- 한반도: 북한 안보위협 의 억지와 방어 / 북한형 평화발전전략지원
- 동아시아: 동아시아 평화번영질서 건축
- 세계: 반핵확산, 반테러, 평화유지, 재난 및 발전지원영역에서 동맹강화

② 한중 전략적 우호협력관계의 발전

- 중국과 복합그물망 확대
- 한미동맹그물망의 심화
- 한반도 평화번영질서를 위한 공진정책
- FTA를 포함한 경제그물망강화
- 중국의 "책임대국" 지원

1. 5중 복합그물망 짜기

- ③ 한일간의 복합그물망짜기
 - 독도/위안부/역사교과서문제의 비정치화
 - 중심무대와 신흥무대에서 협력
 - 동아시아 지역 제도화와 복합정체성의 증대
- ④ 러시아와의 그물망 확대
- ⑤ 인도, 아세안, 오스트레일리아와의 협력증진

B. 한반도 복합그물망

- ① 1단계: 선군정책에서 선경정책으로
- ② 6자 회담과 양자회담의 제한적 효용성
- ③ 포용정책과 제재정책의 실패
- ④ 공진(Coevolution)정책: 북한의 탈선군정책 + 한국의 유관당사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과의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번영체제 건축협력

1. 5중 복합그물망 짜기

C. 지구그물망

유럽연합,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와의 지구그물망확대

D. 사이버공간그물망

동아시아에서 하드파워의 상대적 취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이버공간의 네트워크 파워를 증진

E. 국내그물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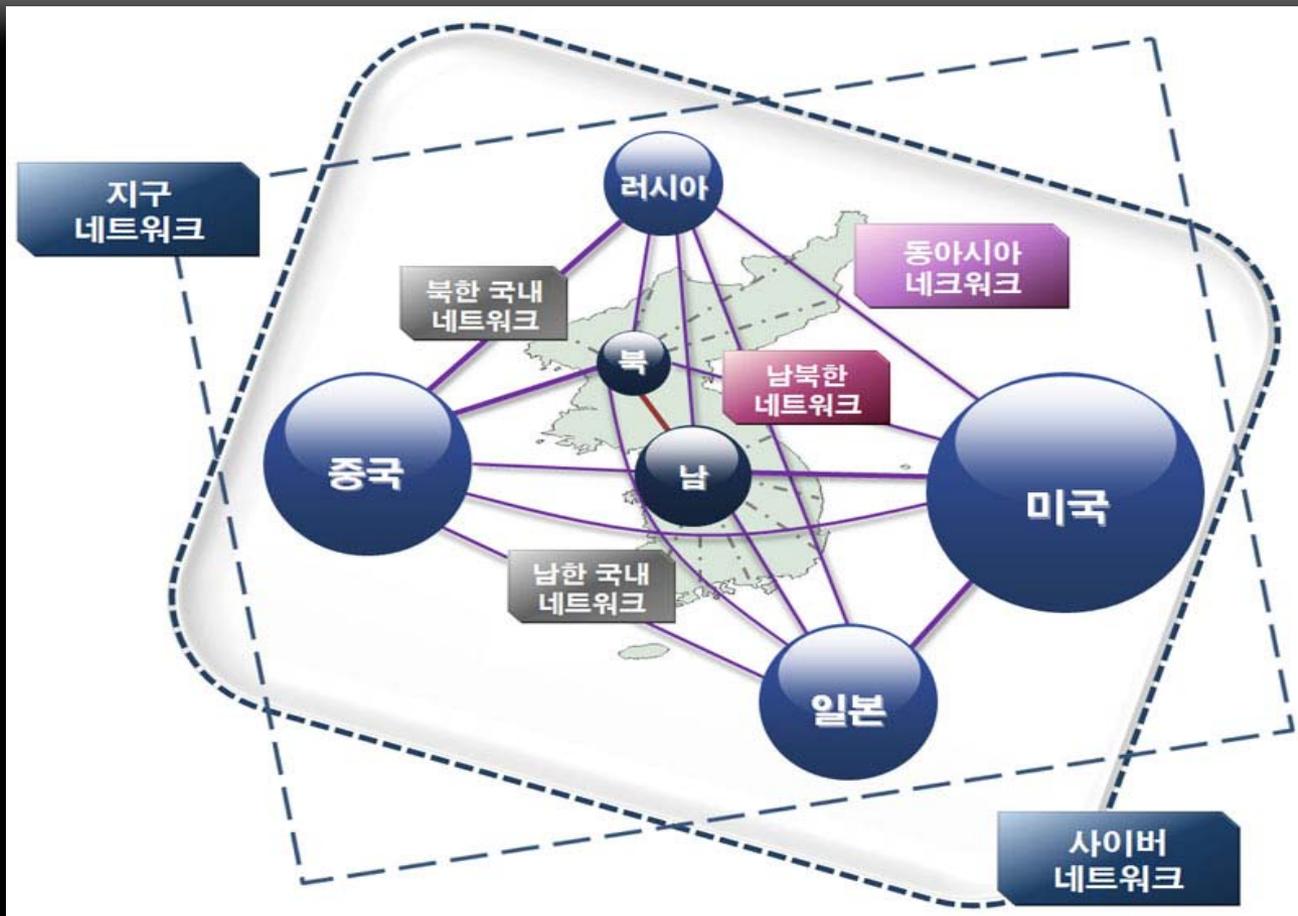
한국의 복합그물망전략 추진을 위한 초당 및 사회적 합의의 강화

2. 3층 다보탑 쌓기

{[(안보/경제)+문화/환경]∈지식}∈통치}

- ✓ 중심무대 : 공동안보/공동번영
- ✓ 신흥무대 : 문화/환경
- ✓ 기층무대 : 기술/정보/지식
- ✓ 상층무대 : 통치

3. 동아시아신질서 건축설계도





감사합니다

